

2022년 겨울호 vol.169

이화인의 밤 / 정성과 열정 담아 모교를 응원하다
제15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이철희 동창
이화가족 성탄예배 /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표지사진
황규호(보교 교육학과 교수)
눈 내리는 EOC(2022)

편집위원

남상백(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흥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허윤선(정외 89, 편집위원)

발행 2023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백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3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2022 이화 성탄 기도
- 03 2022 이화인의 밤
불거리 풍성했던 '이화인의 밤'
정성과 열정 담아 한마음으로 모교를 응원하다
- 08 2022 이화가족 성탄예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 10 2022 '이을 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 행사
창립 1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끈끈한 우의 다져
- 14 2022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 남가주 지회
3년 만에 처음 열린 대면 총회
북미주 전역에서 모인 이화 동창들의 희망의 찬가
- 17 제15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이철희 동창
부족함을 채워 필요한 곳에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순종하고자
- 22 총동창회 소식
10월 정기 임원회에서 '이화인의 밤' 행사 점검 외
- 24 선교부 소식
2022년 총동창회 선교부 가을 수련회를 마치고
- 26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 '바늘이야기 김대리' 김보경 동창
K스타일 뜨개 문화를 선도하다
- 30 이화의 기도처 순례 / 사법대학 기도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32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성경 번역을 향한 공동체의 열정
- 34 모교 소식
최초의 여성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초청 특강 개최 외
- 39 대학(원) 소식 자연과학대학 외
- 42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 48 지회 소식 뉴욕 지회 외
- 54 동창 근황 김경자 동창 외
- 67 동창이 퍼낸 새 책『시작입니다.』 외
- 68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 68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 70 연회비 납부자 명단



03



08



10



14



17



26



2022 이화 성탄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거룩한 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이화 가족에게 은총 내려 주십시오.

136년 이화 동산에 내려 주신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이화 가족은 언제 어디서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유와 공명심, 사심과 자기 의로움에 집착하지 않는 빛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화 동산에서 일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일상 가운데

지혜의 등불로, 평안의 숨결로, 화목의 화신으로 와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 동산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빛 마음이 절망과 고통 많은 세상에 오시는

희망등이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빛 구유 되게 해주십시오.

높고 화려한 곳, 강하고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비천하고 비루한 곳에 스스로를 낮추어 오시는 주님,

저희로 그 거룩한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 알게 해주십시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이화 학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희망의 빛으로 와주십시오.

높은 천장과 막힌 담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화 젊은이들의 고단한 마음에 위로의 생기로 와주십시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

25만 동창들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로 와주십시오.

폭력과 억압, 차별 아래 울부짖는 세상 모든 여성들과 기도로써 연대하게 해주십시오.

동창들의 손과 발에 사랑의 불씨로 와주셔서,

이화 동창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의 듦는 손길과 발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이화인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 동산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온 누리에 관용과 평화 넘치기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 이화인의 밤

볼거리 풍성했던 ‘이화인의 밤’ 정성과 열정 담아 한마음으로 모교를 응원하다

대강당에 다시 모여 136년 이화 역사를 함께하다

총동창회는 2022년 11월 28일(월) 저녁 7시 모교 대강당에서 ‘이화 가족이 이화를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2 이화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총동창회가 주최해 온 ‘이화인의 밤’은 많은 이화인이 정성을 모아 모교를 응원하는 자리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간의 아쉬움을 날려버리듯 3년 만에 대면으로, 모교의 상징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각 과 및 대학(원), 지회 동창들과 모교 교직원 및 교수 등 2,0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워 모교를 후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마음을 함께했다.

특히 총동창회는 예년과 달리 대강당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볼거리 풍성한 ‘이화인의 밤’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곳곳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공연 중심의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모교 공연예술대학원의 정소희(작곡 89) 동창과 이주영(성악 04) 동창이 기획을 맡아 꼼꼼한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덕분에 음향과 영상, 무대 조명이 멋지게 어우러진 홀륭한 무대가 연출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대강당 로비 한쪽에 마련된 ‘이화를 응원합니다’ 포토 존에서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행사 직전 대강당 무대 정면에는 지난 4년간 총동창회의 면면을 담은 영상이 송출되어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참석자 모두에게 잠시나마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다.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이화인의 밤을 시작하며’는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기도에서 “온 나라가 이태원 참사로 슬프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 이때 안타깝게도 이화의 두 딸도 그 가운데 있다”며 “진정한 위로자 메시아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말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오늘 이화인의 밤이 춥고 시린 현실에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곧이어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이화 정신이 새겨진 특별한 공간 대강당에서 많은 이화인들과 직접 만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가 오늘밤 학창 시절의 한때를 보낸 모교 대강당에 다시 모여 이화 136년 역사의 하루를 함께하고 있는 것 또한 큰 축복”이라는 말로 ‘이화인의 밤’ 대강당 개최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이화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총동창회의 든든한 베풀목이 되어준 여러 동창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특별히 힘든 시기에도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헌신적으

로 도와준 각 과 및 대학(원) 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들과 지회 산하단체 회장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남상택 회장은 마지막으로 “빛은 선함과 의로움의 상징이기에 아무리 적더라도 큰 아둠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자신과 사회에 빛을 비추는 이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원으로 인사말을 맺었다.

선교지 캄보디아를 섬길 시어머니로 여기며

다음 순서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에게 수여하는 제15회 ‘아름다운 이화인’ 시상이 이어졌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이철희(간호 88) 동창은 2001년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어린이 공부방 사역과 지역사회 보건 사역을 시작하고 아시아교육봉사회(VESA)에서 세운 이화스렁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간호사로서 2016년 스렁이화 진료소장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캄보디아 지역사회의 건강 복지와 전도 및 교육 사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이철희 동창에게 상패와 부상(상금 1,000만 원과 꿈인한복 상품권)을 전달



모교발전기금 기증서를 들고 함께 포즈를 취한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김은미 모교 총장

제15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이철희 동창



박정자 동창, 이화여대 남성교수 중창단, 뮤지컬 배우 김호영, 박성희 동창, 가수 이치현, 이화교수 트리오(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한 후 선교사 이철희 동창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짧은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존경과 환영의 박수와 함께 단상에 오른 이철희 동창은 수상 소감에서 “아들과 남편을 잊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기록된 「롯기」를 읽으며 처음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눈에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신의 삶을 찾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대로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오르바의 인생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상관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무겁게 제 마음에 새겨졌다”고 고백하며 “홀로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운명을 같이하기로 한 이방여인 롯과 같은 혼신적인 마음을 주시고 저를 보내신 선교지 카보디아를 섬길 시어머니로 여겨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격려하시고 제 마음을 불잡아 주셨다”고 소회했다.

더불어 “딸을 보내는 심정으로 20여 년을 눈물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해 살펴 주시며 함께해 주신 아시아 교육봉사회에 감사드리며 이 귀한 상은 더욱더 아

름다운 삶을 나누라는 격려로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는 말로 감동 어린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모교발전기금 2억 원 모교에 전달

이어 총동창회가 마련한 재학생 장학금과 모교 발전기금(2억 원)을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김은미 총장에게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올해 각 과 및 대학(원) 동창회에 판매된 후원 티켓은 모두 2,000 여 장으로 이화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후원금 전액은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해졌다.

다음 순서로 김은미 총장이 참석한 동창들에게 모교 소식을 전했다. “이화 비전 2030+ 발전 계획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혁신 플랫폼 구축을 선포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정말 뜰 뜰 뭉쳐서 지난 2년간 열심히 뛰었다”는 김 총장은 “모교는 국내 대학 평가에서 올해도 6위를 유지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데이터사이언스, 반도체,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에 다수 선정되었다”며 최근 거둔 몇 가지 성과에 대해 보고

했다.

또한 앞으로 계획 중인 두 가지 사업, 즉 이화 150년사 편찬 사업과 이화 미래 캠퍼스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1886년 당시 미국연합감리교 여선교사회가 세계 여러 곳에 설립한 대학 중 연구 중심 종합대학, 그것도 대학병원까지 있는 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이화가 유일하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독교 선교와 여성 교육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화의 소명”이라고 이화 역사 편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리모델링을 시작, 202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학관을 비롯해 생활환경관과 헬렌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최적화된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라며 “특히 역사적 보존이 필요한 헬렌관은 정면을 살리면서 건물 본체를 재건축해 중앙도서관과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한 건물처럼 연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모교 기부자 중 한 사람으로 대외협력처의 초청으로 참석한 88세의 김현순(법학 60) 동창은 조카 이동귀(독문 74) 동창의 부축을 받아 대강당 앞자리에 앉으며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기가 막히게 좋아요. 감개무량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비록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발걸음이었지만, “60여 년 전의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황홀하고 열정적인 무대 '아주 특별한 공연'

‘아주 특별한 공연’으로 꾸며진 2부 순서는 아나운서 진양혜(수학 92)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공연의 문을 연 첫 순서는 이화의 아이돌 ‘이화여대 남성 교수 중창단’의 열정 가득한 무대로, 채기준·박신화·김동근·이상돈·황규호·이형준·원영석·유영민·김인한·고광석·장윤재·계명선(반주)

교수가 <우정의 노래>, <Vive L'Amour>와 ‘가요 메들리’를 선사했다. 특히 가요 메들리 중 <다이너마이트>와 <넥스트 레벨>을 부를 때는 객석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두 번째 순서는 모교 음대 교수(첼로:배일환, 바이올린:나은아, 피아노:김문정)들로 구성된 ‘이화 교수 트리오’의 <아름다운 이화>(김덕주 편곡),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조이투더월드> 세곡의 연주였다.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장식한 연주곡 중 <아름다운 이화>는 찬송 <참 아름다워라>와 모교 교가를 편곡한 곡으로, 얼마 전 LA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초연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오늘이 자리가 첫 무대여서 더욱 뜻깊었다.

곧이어 이날 공연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먼 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소프라노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화려한 성악 무대가 펼쳐졌다. 정영하(피아노 92) 동창의 반주에 맞춰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 왈츠>, <오 훌리 나이트>,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를 부른 박 동창은 아찔하고도 황홀한 고음 처리와 중간중간 재치 있는 멘트로 객석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열정 넘치는 성악 무대가 끝난 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 중 간중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행사 자리에서 직접 추첨하는 방식과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컴퓨터 무작위 추첨은 시간상 미리 총동창회에서 공정하게 진행해, 무대 위 화면에서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무대는 ‘이치현과 벗님들’의 메인 보컬리스트 이치현이 등장해 1980~1990년대 추억의 한 자락을 꺼내 보는 시간을 선사했다. 자신의 히트곡 <나탈리>, <당신만이>, <집시 여인>, <추억의 밤>,



대강당 객석을 가득 채운 2,000여 명의 동창과 이화 가족들

〈사랑의 슬픔〉 5곡을 부른 이치현은 “이화의 뜻깊은 행사에 게스트로 초청되어 다시 없는 영광”이라며 “제 노래가 이화인들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피어나길 기대한다”고 벽찬 소감을 밝혔다.

다음 순서로 최근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의 역동적인 무대가 이어졌다. 뮤지컬 《맨오브라만차》의 〈맨오브라만차〉, 《맘마미아》의 〈머니머니머니〉, 《킹키부츠》의 〈랜드오브롤라〉로 종횡무진 무대를 누비며 신바람 나는 공연을 펼친 김호영은 “이화인이자 가장 나이 많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소개하겠다”는 멘트와 함께 연극계의 거장 박정자(커미부 명예졸업) 동창의 깜짝 출연을 알렸다. 매력적인 중저음의 소유자 박 동창이 〈낭만에 대하여〉와 〈내 마음 갈곳을 잃어〉를 짜릿짜릿한 목소리로 열창하자 대강당을 가득 메운 동창들은 우레 같은 박수 갈채로 화답했다. 노래를 끝낸 박 동창이 아쉬움을 남긴 채 곧바로 퇴장한 후 김호영은 백댄서와 함께 다시 등장해 앙코르곡 〈인연〉과 〈붉은 노을〉을 관객들의 ‘떼창’을 유도하며 신나게 불러 객석을 들썩이게 했다.

마지막 3부 ‘이화인의 밤을 마치며’에서는 이화여대 남성교수 중창단과 자그마한 LED 촛불을 든 총동창회 임원들이 무대에 올라 한목소리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교가를

제창하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

멀리 토론토에서 모교를 찾은 조미리(도예 81) 동창은 “총동창회 토론토 지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직접 대강당에 와서 처음으로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보니 이화인으로서 더욱 뿌듯한 자긍심이 생긴다”며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초청 게스트 등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행사였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모교 총장을 비롯해 장상·신인령·이배용·김선욱 전 총장과 의료원 관계자, 윤순희·김순영·조종남 전 총동창회장 및 이경숙·김영주 고문 등이 참석해 모교 후원에 힘을 실어 주었다.

후원 티켓을 구매한 동창들에게는 총동창회가 마련한 텁블러와 타월, 떡, 총동창회 달력과 수첩, 커리 2종((주)샘표식품 협찬), 초콜릿과 사탕(한국마즈 협찬) 등 알찬 선물 꾸러미를 제공했다.

모교와 동창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전해준 동창과 가족들은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눴다. 이날 촬영한 전체 행사 영상은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bit.ly/ewhaalu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3시 모교 대강당에서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열렸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닫혀 있던 대강당이 비로소 문을 열고 대면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교목실과 총동창회는 학생 및 교직원, 동창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대면 예배의 기쁨을 한껏 누렸다. 음대 박소현 교수의 파이프 오르간 전주와 김동근 교수의 선창으로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을 함께 부를 때, 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마음 그리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다 그 탄생을 맞는 감격이 함께했다.

이어서 ‘이화가 드리는 기도’를 교수, 직원, 학생, 동창 대표가 드렸다. 주보림(패션디자인 전공) 교수와 김재욱(관리처 노조위원장) 직원 대표, 강예본(기독교학과 22학번) 학생과 동창 대표로 하윤희(경영 90) 선교사가 나서 ‘이화가 드리는 기도’를 합하여 주님께 올려드렸다.

이어서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누가복음 2:25-32의 성경 봉독을 하였고 박신화 교수의 지휘와 신지화 교수의 독창이 함께하는 음대 합창단의 <오 거룩한 밤> 합창 후에 안선희 교목실장의 ‘선물 같은 존재’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받은 최대의 선물이다. 이를 믿는 우리도 타인을 향해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이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며 예수는 이방의 빛이 되신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물 같은



남상택 총동창회장(위)과
김은미 모교 총장



3년 만에 대강당에서 대면
성탄예배를 올린 이화가족



안선희 교목실장의 축도
(왼쪽)와 '이화가 드리는 기도' 및
축하 연주가 함께하였다

존재. 빛이 되자는 메시지였다. 안선희 교목실장의 설교는 감동의 성탄 축하 메시지를 이화에 주는 자리였다.

이어 성기선 교수가 지휘하는 이화오케스트라(배종선·송지원·김정기 교수 연주)의 〈A Christmas Festival〉 연주 후에 현금 순서가 있었다. 이때 '이화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라는 동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세계 각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현장과 사역이 펼쳐지며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현금 기도로 130여 명의 이화 동창 선교사들에게 이화가 드리는 작은 현금이 현지에서 주님의 크신 위로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김은미 총장은 성탄 인사로 이화가 입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하였다. 이어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박신화 교수 지휘로 음대 합창단의 〈썰매타기〉 외 크리스마스 캐럴을 모두 함께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렸다.

총동창회에서는 예쁘게 포장한 떡을 성탄 선물로 예배 참여자들에게 선사하였다. 쌀쌀한 날씨지만 성탄을 맞는 기쁨으로 닫혔던 대강당이 열리듯 우울하고 닫혔던 마음들이 메시아를 맞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 ECC 앞에 설치된 말구유에 점등이 되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이 이화에서 시작되어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긴 불빛이었다.

글·총동창회 선교부/사진·이화여대 홍보실



성탄을 축하하는 이화오케스트라와 음대 합창단의 공연

창립 1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끈끈한 우의 다져



총동창회는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7시,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이올 연합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을 비롯해 1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이올(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였다. 행사는 1부 축하 떡 케이크 커팅식과 기별 활동 보고와 사업 보고, 2부 축하 연주 및 장기 자랑, 행운선물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올'은 1991년부터 매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각 과에서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을 모아 만든 연합회이다. 지난 2019년 '이올' 발대식을 가진 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창립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임원진 구성과 내규 발표를 하며 정식 출범하였다. 올해는 대면으로 개최해, 선후배의 유대감을 돋우고 더욱 활기찬 단체 활동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1부 행사는 정미정(국문 89, 2019 '올해의 이화인', 전 KBS아나운서) 동창의 사회로 시작됐다. 신난식(성악 73) '이올' 부회장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마태복음 5:13~14)를 봉독한 데 이어, 김옥광(섬예 80) 동창이 "이화인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축사를 하는 남상태 총동창회장



임진 '이올' 회장

임진(작곡 72) ‘이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올’(이화여자대학교 올해의 이화인의 약자)’이란 ‘올해의 이화인’과 올해 처음 제정된 ‘영원한 이화인’ 모두를 아우르는 모임이다”라고 설명하며, 처음 참석한 ‘영원한 이화인’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화의 프라이드(자부심) 이올, 이올의 프라이드(자부심) 이화’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이올’ 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준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후원에 감사를 전했다. 임진 회장은 ‘이올 연합회’가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친목과 동창회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분홍 드레스코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일상으로 인해 줌 화상으로 만나다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고 열정과 봉사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1991년 1기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32기까지 1,400여 명 가까운 동창을 추대하였다”면서 “동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총동창회의 산하단체로서 출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뜻깊은 사업과 행사를 계획하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보람된 일을 추진하는 모습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하며, “기별 활동이 소개되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더욱 활기찬 모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사를 맺었다.

다음으로는 김은미 모교 총장의 축사를 이해선 대외협력처 처장이 대독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김은미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 1주년을 축하하며 “‘이올’ 회원들의 이화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화에 대한 자긍심을 늘 간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 ‘이올’ 회장이 ‘이올 연합회’ 임원진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은 임원들의 수고에 큰 박수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창립 1주년을 축하하는 떡케이크 커팅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임진 ‘이올’ 회장, ‘영원한 이화인’ 임금자(기악 59) 동창을 비롯해 내빈들이 함께 커팅을 했고, 테이블마다 따끈한 떡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을꽃을 피웠다. 임진 ‘이올’ 회장은 각 10주년(2012), 20주년(2002), 30주년(1992)을 맞는 기 대표에게 축하금을 전달했다. 올해 신입회원을 소개할 때, 2022년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2022년 기 대표 황지숙(독문 92) 동창은 “새로운 ‘이올’ 멤버가 되어 명문 이화를 빛내도록





'올해의 이화인'들의 축하 공연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늘거리는 분홍 드레스의 ‘아르모니아’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 ‘올해의 이화인’ 선후배가 모여 2014년 창단한 ‘아르모니아’ 합창단은 하모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별>과 <친구> 두 곡을 선사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이올 연합회’ 선후배 간의 화합을 축원하는 무대를 꾸몄다.

봉사와 기부로 이화 정신 발휘한 선행 이어져

이어 각 기별 활동 보고 시간을 가졌다. 올해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동창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2002년 기 대표 권필숙(사복 72) 동창은 “다른 전공으로 늦게 만났지만, 20년 동안 이어진 우정과 함께 진정 영원한 이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대서울병원에 5,000만 원을 약정했다고 보고한 2017년 기 대표 권미경(교공 87) 동창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합쳤다”고 설명하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대사회복지관을 통해 13년간 조손 가정 아이

들을 후원했다고(총 1,290만 원) 보고한 2003년 기 대표 황재경(의직 73) 동창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한 일은 이화인들의 만남에서 행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뭉클한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기 대표 박서영(피아노 89) 동창은, 최내경(불문 89) 동창의 어머니 박진숙(심리 58. 제1회 ‘아름다운 이화인’) 동창의 매실보육원의 문화 강당 건축 후원금을 모아 전달했다고 보고하였다.

2021년 기대표 이영은(피아노 91) 동창은 “지난 1년여 함께하며 진정한 공손과 참 배려 참 나눔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고, 2020년 기 대표 최혜정(한음 90) 동창은 “코로나19가 완화된 상황에서 더욱 끈끈한 정을 나누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고 화답하며 훈훈한 활동 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동창들은 각 기별로 미술관·박물관 탐방과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와 특강, 골프 동호회, 환갑을 맞는 기의 환갑 생일 파티 등의 활동을 통해 친교와 우정을 쌓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연합회부터 각 기별로 봉사와 친교 활동을 ‘이올’ 회원들 전체에게 보고하는 시

간을 가짐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다음으로 회계 권미경(교공 87) 동창이 ‘이올 연합회’ 재무 현황을 보고하였다.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여섯 차례의 특강이 있었다고 알리고, 회원들의 연합 전시와 여행, 답사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별 장기자랑 등 축제의 장 이어져

2부는 황재복(영문 83) 동창이 사회를 맡아 기대와 환호의 속에 축제의 문을 열었고, 이화정(피아노 90) 동창이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파워풀하게 연주하자 행사장은 순식 간에 열띤 분위기로 고조됐다. 이어 다섯 팀의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분홍색 고운 한복을 입고 무대 위로 오른 2004년 ‘올해의 이화인’ 팀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렀다. 주성희(의직 74) 2004년 기 대표는 “‘올해의 이화인’이 되고 18년 만에 71세가 되어 첫 모임을 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수단에 학교를 세우는 봉사를 한 디자이너 이광희(국제사무 74) 동창 등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이올 연

합회’ 덕분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첫 모임을 만들었다”며 나아가 장기자랑까지 출전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들은 차차차 댄스를 홍겹게 춘 서희선(경영 88) 동창과 함께 ‘우정상’을 받았다.

신입 회원인 2022년 ‘올해의 이화인’ 팀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배경으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노래를 불러, 아련한 감동을 선사하며 ‘기쁨상’을 차지했다.

꽃무늬의 강렬한 의상과 함께 등장한 김경옥(약학 72) 동창은, 댄스스포츠 선생님을 파트너로 대동하여 룸바 댄스를 무대에 올려 눈길을 사로잡아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날의 최고상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활기찬 체조로 온몸을 불사른 2021년 ‘올해의 이화인’의 ‘에어 체조’가 차지했다. 에어로빅과 체조를 접목하여 쉽고 간단하게 만든 전신 체조로서, 김양례(체육 91) 동창이 안무를 짜고 체조 영상을 만들어 한 달 동안 각자 집에서 연습했다고 한다. 10명의 동창이 핑크 티셔츠를 경쾌하게 맞춰 입어 현장에서 압도적인 호응을 받으며 ‘이올상’을 안았다.

한나라(한음 22) 동창이 해금으로 연주하는 <엄마야 누나야>가 축하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였고, 이어진 행운선물(경품) 추첨 순서에는 푸짐한 행운선물로 즐거움을 더했다. 퇴근을 앞당겨 서둘러 도착한 동창들은 세 시간여 진행된 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이올 연합회’가 되길 소망했고, 교가 제창을 끝으로 홍겨운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와 대외협력처에서 마련한 기념품과 행운선물을 가득 안고 더욱 활기찬 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행사장을 나섰다.



대면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3년 만에 처음 열린 대면 총회 북미주 전역에서 모인 이화 동창들의 희망의 찬가



2022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22년 10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남가주 지회 주최로 Los Angeles에서 3박 4일에 걸쳐 'Together in Hope'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북미주 전 지역으로부터 400여 명의 동창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행 자체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의 모교 행사와 겹쳐 많은 동창들이 한국 방문을 하는 바람에 처음 기대보다 타 지회 동창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대면 행사인데다, 많은 동창들의 후원 및 광고, 남가주 지회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행

사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 모교에서는 김은미 총장 외에 이혜선 대외협력처장, 김인한 국제처장, 이화국제재단에서는 스완슨 이사장 및 이사들이 참석했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영상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쉬지 않고 변화해야 새 시대에 적응 가능

27일(목) 첫날은 북미주 각 지역에서 모이는 동창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주최하는 각 지회장 디너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줌 영상으로 각 지회의 소식과 의견을 총동창회에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황수영(화학 89, 디트로이트 지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이 주최하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고문 추대, 감사 선출, 회계 계정과목 정리, 미디어팀 운영 등 북미주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28일(금) 둘째날 남가주 지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처음 LA를 방문한 동창들을 위한 1일 관광코스를 열었다. 동창들은 Griffith Park, Hollywood, The Grove, LACMA, Beverly Hills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LACMA에서 '이진희근대사전시회'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골프 마니아들을 위한 토너먼트도 진행하였고, 관광을 하지 않는 동창들을 위한 민화 클래스를 호텔 내에서 진행해 동창들에게 한국의 민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저녁에는 '총장님과의 만찬'이 남가주 지회의 자랑인 '아름다운 Trio(엄인용(종음 72)·정원혜(성악 83)·원순일(성악 85) 동창)'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개회선언과 함께 교가 제창을 하였는데, 모두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총회라서인지 가슴 뭉클한 순간을 맛보았다.

남가주 지회 정현숙(체육 87)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에서 총회를 위해 특별히 방문한 김은미 총장의 말씀이 있었다. 김은미 총장은 "팬데믹 기간에도 쉬지 않고 다가올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교육과 연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 평가순위 6위를 기록하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 데는 "이화의 헌신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이화 동창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이라며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했다. 이혜선 대외협력처장이 모교 소식을 알려 주었으며, 이화국제재단 스완슨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남가주이화합창단의 축가를 끝으로 1부 만찬의 막



김은미 모교 총장이 스완슨 이사장에게 모교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위)
만찬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김은미 총장과 동창들(아래)

이 내렸다.

2부에서는 총회에서 특별 공연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모교 음대 배일환·김미령·강소연·박혜온·곽은아 교수의 아름다운 축하 연주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파티의 정점인 각 지회의 텁 런트쇼는 뉴욕, 애틀랜타, 남가주 지회에서 참가하여 각각 1,2,3등을 수상하였다.

이화국제재단, 모교에 150만 달러 장학금 전달

셋째날인 29일(토) 오전에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지회 보고, 2021 결산 보고,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사업 보고가 있었고, 차기 총회 개최지로 보스턴이 결정되었다. 총회 후 이화 동창들은 Getty Center, Santa Monica의 거리를 구경하고



비치를 다녀왔다.

저녁에는 하이라이트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대만찬이 교가 제창과 함께 개막되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이화국제재단 총회도 겸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국제재단 스완슨 이사장은 그동안 북미주 전역 동창으로부터 모금한 누적 금액의 지난 한 해 투자 수익금 150만 달러를 모교 장학금으로 김은미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매우 가슴 뛰듯한 장면이라 동창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2부에는 모교에서 특별히 방문한 음대 교수들의 현악 3중주(배일환·김미령·강소연 교수)와 국악 연주(박혜온·곽은아 교수)로 동양과 서양이 멋지게 만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선율의 트리오와 국악이 어우러져 우크라이나 국가가 울려퍼졌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연주 퍼포먼스를 하는 교수들의 연주로 총회가 더욱 의미 깊고 빛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30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총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참여한 모든 동창들의 격려와 칭찬으로 3박 4일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었다. 남가주 지회 동창회 임원들과 한결음에 달려와 도와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임원들도 처음 보는 동창들 누구도 어색하지 않고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글·이호훈(무용 88, 남가주 지회)

1. 수고와 열정으로 총회를 주최한 남가주 지회 임원들
2. 모교 음대 교수들의 축하 공연
3. 텔런트쇼 남가주 지회
4. 텔런트쇼 뉴욕 지회
5. 텔런트쇼 애들랜타 지회
6.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했다

제15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이철희 동창

부족함을 채워 필요한 곳에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순종하고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약 55km 떨어진 도시 꼼ᐉ스프주 껌뻬세이군 스렁면 병로마을. 이철희(간호 88) 동창이 현재 눈물과 기도로 사역하는 스렁이화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이다. 우기와 건기가 있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텅기열, 장티푸스 등의 풍토병과 인구의 90%가 토착신앙과 혼합된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 캄보디아. 이 동창은 제15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 소감에서 성경의 룻과 같이 영적·물질적 굶주림이 만연한 이곳을 '섬길 시어머니'로 여기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귀국한 이 동창은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선교부 기도 모임과 선교 보고회 등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말간 얼굴에 산뜻한 단발머리의 이 동창은 “캄보디아 땅 그 뜨거운 햇볕에 그을리고 그 힘든 문화에 적응하느라 닦고닳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얼굴”이라는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표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

이 동창은 2001년 모교 대학교회, 다락방전도 협회, 이화선교사후원회(현 아시아교육봉사회

VESA)를 통해 캄보디아에 파송된 제2호 선교사이다. 프놈펜에서 언어 연수를 받으며 어린이 공부방 사역과 지역사회 보건 사역을 해오던 이 동창은 2009년 VESA가 설립한 이화스렁 초등학교 초대 교장을 거쳐 현재는 2016년 개원한 스렁이화 보건진료소 소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도에 힘쓰고 있다.

VESA는 2000년부터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 온 ‘이화선교사후원회’가 2004년 10월 선교지를 더욱 확장하면서 새롭게 창립한 선교 기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모교 졸업 직후 한강성심병원과 이대동대문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활동했던 이 동창은 뜻밖에도 “막연하게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정도였지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 동창은 “제가 아무리 거부해도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한다. 기독교



어린이 청소년 사역 중 문해교육 장면으로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학교인 모교를 오게 된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리고 VESA의 교수님들을 만나 캄보디아에 발을 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일찍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왔던 이 동창은 비록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터였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일까 깊게 고민했어요. 한마디로 애늙은이였죠.”

이 동창이 자라온 환경을 알고 나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의 고향 부여의 시골 마을은 주변 장지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로 가 있는 중심 마을이어서 예닐곱 살부터 장례 행렬을 자주 볼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막 울고 애통해하지만 1, 2년 후에는 또 평상시대로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게 더 허무했어요.”

게다가 방학 때면 시골 다락방에 올라가 언니

오빠들이 보던 수필을 자주 읽었다. 인생을 관조하는 수필들에는 성공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고 쓰여 있었다. “성공에 대한 세속적 포부를 내려놓고 나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값진 인생이겠더라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했던 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세상 유혹과 경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에 치한 탓이었을까,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 동창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교회도 다니는 등 마는 등 하며 한강성심병원 간호사로 일할 때 간염 환자의 주삿바늘에 찔려 급성 간염에 걸리고 말았다. 시골집에 내려가 요양을 하게 된 이 동창에게 하나님은 중고등학교 때 순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심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다. 건강이 회복되고 이대 동대문병원으로 직장을 옮긴 이 동창은 다시 제발로 모교 대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무렵 또다시 이 동창을 괴롭히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안정된 직장생활로 생활고도 해결해 주셨는데 결혼 적령기가 되어도 결혼 문제만은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요.(웃음) 그것 하나만 해결되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 역시 이 동창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였다. “나중에야 저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반성했어요. 원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좁은 내 문제 속으로 끌어온 탓에 제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마침내 선교 사역을 가슴에 품다

선교에 관심조차 없던 이 동창에게 직장 동료가 중국 의료선교팀에 간호사 인력이 필요하니 다녀 오라는 제안을 했다. 심적으로 괴로웠던 차에 백두산에 가보고 머리도 식힐 겸 의료선교에 동행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 다녀온 후로 자꾸 제 마음 속에 ‘만약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며 선교 활동을 하는 제 모습을 그려 보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선교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선교에 자꾸 관심이 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마음에 확 들어 왔다. 그때부터 ‘선교한국’이라는 선교 단체도 스스로 찾아가고 선교 기관지도 읽으면서 스스로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선교한국’은 대학생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선교에 대해 배우고 선교사 파송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초청하고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 동창은 직장에 다니며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고 1년간 주말 초보자 훈련 코스를 밟았다. 그제야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다. “결혼도 안 한 딸이 잘 다닌던 직장도 그만 두고 선교사로 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무척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허락되면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겠다고.” 마침내 선교사 파송 직전인 2000년 12월 말 어머니로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2000년 한 해 동안 본격적인 선교 훈련이 끝나

고 2001년 1월 이화선교사후원회를 통해 파송 선교사로 선정된 사연도 드라마틱하다. 당시 이화선교사후원회에서는 한국 최초의 파키스탄 선교 사이자 ‘선교계의 대모’로 통하는 모교 기독교학과 전재옥(영문 60, 2016년 작고) 교수 이후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새롭게 선교사 파송을 계획하고 파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를 시찰하며 선교지를 물색하고 선교사도 모집 하던 중이었다.

그때 이철희 동창은 평소 선교 사역에 적극적이었던 모교 간호대학의 고(故) 김수지(간호 64, 2016년 작고) 교수에게 안부 전화를 하며 직장을 사직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선교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 교수는 이 동창에게 “당장 학교로 오라”며 반가워했다. 당시 모교 신양공동체인 ‘이화가족 새벽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던 김 교수를 통해 이화선교사후원회의 전길자(화학과 교수) 회장을 만나게 된 이 동창은 김수지 교수를 비롯한 선교 장학생 팀과 함께 캄보디아로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 선교여행을 떠났다.

캄보디아의 의료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현지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그곳 여성들은 이런 교육은 난생 처음 받아본다며 나중에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다. 엉겁결에 그러라고 대답했는데 그 약속이 이 동창을 캄보디아에 묶어 놓은 인연이 되고 말았다. “그다음 방학 때 전길자 교수님이 다시 보건 교육 해주겠다고 그들과 약속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또 한번 하나님 의 큰 계획을 실감했죠.”

그렇게 이 동창은 2000년 파송된 제1호 선교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심어 주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쓰레기를 줍는다



4개 마을 이장님들을 모시고 국내 NGO 등록 1주년 기념 사진을 찍었다

임신자(특교 95) 동창에 이어 2001년에 두 번째로
캄보디아로 파송된 선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을 넘어 주민들에게까지 섬김을 실천하며

2009년 초등학교 한 클래스와 유치원을 갖추고
개교한 이화스렁학교의 교장으로 교육 사역을 시
작한 이 동창은 그곳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 질서 교육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
르치는 데 집중했다.

“개교하고 얼마 안 되어 그곳 물축제 기간에
300명 이상이 압사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
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그곳에는 무질서가 만연해 있었어요. 어려서
부터 차례 기다리기, 줄 서기, 소지품 정리하기 등
질서 교육이 시급하다고 인식했죠.”

또 불교의 윤회사상에 젖어 사는 그들은 죽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생명과 인생의 소중함
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 곳은 아마 이화스렁학교밖에 없었을 거예
요. 그들에게는 영적 긴장감도 애도한다는 개념
도 찾아볼 수 없었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사상이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고 될 대로 되라
는 식의 가치관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는 이 동창

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없는
목숨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바꿔 주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다”고 말한다.

3년의 교장 임기를 마치고 안식년에 들어가면
서 종업식 예배를 드리며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했다. “제가 잘
해서 운다기보다 서로 마음 놓고 믿는 사이가 되
었는데 떠난다니까 섭섭하고 힘들었겠지요. 우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토닥여 주다 보니 주님이 저한
테 ‘너 마치 우는 애들 떼어 놓고 도망가는 엄마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했
죠. 이 아이들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들겠구나.”

사실 이 동창은 교육 사역을 그만두고 간호사
달란트를 살린 사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았
다. 게다가 이화스렁학교 교장을 맡으면서 휴학
했던 프놈펜대학에서의 크메르문학 공부를 안식
년 동안 마칠 계획이었다. 아이들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뒤로하고 프놈펜대학을 졸업한 뒤 VESA
에 학교장을 그만두겠다고 보고했다.

“전길자 회장님을 비롯한 VESA의 이사님과 임
원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워요.
맡겨 주신 사역을 하지 않으려면 제가 VESA를 떠
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셨어요. 마을에서 주민들 건강

을 돌보며 의료 봉사와 전도를 하고 싶다는 제 말에 보건진료소 설립을 후원해 줄 단체를 백방으로 수소문해 연결해 주시고 결국 스렁이화 보건진료소를 세워 저한테 소장을 맡기시며 거기서 마음껏 일해 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스렁이화 보건진료소는 현지 의사와 미화원 등을 채용하고 간호사는 이철희 동창이 맡는 등 최소한의 인력이지만 질병 치료 및 예방으로 캄보디아주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했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혈압·당뇨·위장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보건 교육, 환경보호운동, 인근 4개 초등학교의 학교보건 사업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이화의료원팀 등 우리나라 전문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진료소를 방문,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진료소에서 혈당·요산·콜레스테롤·빈혈·장티푸스·헬리코박터균·간염·뎅기 열 등의 혈액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 동창은 오전에는 의료 사역, 오후에는 어린이·청소년 사역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이 동창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심어 주고 몸소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마약이 흔한 이곳 아이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 교육 및 건전한 신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 동창은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이끌고 뒷산을 오르거나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마을 저수지로 나간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게 하자는 게 이 동창의 목표다.

재밌는 것은 개인위생 실천방법의 하나로 매주 토요일을 손발톱 깎는 날로 정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개인위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 보니 아무리 손톱깎기를 나눠 줘도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아예 아이들을 모아놓고 손발톱 깎기를시키고 기생충 교육과 식사 교육 등의 보건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을 떠나지 않게 된 일이다. “제가 보건소장을 맡으면서 두 가지가 다 해결된 셈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의료 봉사로 섬기면서 전도하는 일과 아이들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 학교를 방문해 보건 교육과 성경 교육을 하게 되었잖아요.”

스렁이화 보건진료소에 오면 잘 낫는다는 소문이 퍼져 주변 마을에서도 찾아올 만큼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그만큼 양질의 진료와 처방으로 신뢰를 쌓은 덕분이다. 그렇게 쌓은 신뢰관계는 이 동창이 그들의 영적 문제를 상담하고 전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이제 이 동창은 보건진료소 의료 사역으로 그 지역을 섬기면서 현지 교회가 견고해지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역지가 세워지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현지 교회 설교자 및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으로 지원하고 진료소에 왔던 주민들을 상대로 가정 방문을 하면서 건강도 돌봐주고 전도도 하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오래오래 섬기려고 요즘에는 건강 관리에 엄청 신경쓰고 있다”는 이 동창은 “저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필요한 곳에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늘 감탄하게 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총동창회 소식

10월 정기 임원회에서 '이화인의 밤' 행사 점검

2022년도 10월 정기 임원회가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이날은 '대바자회' 평가와 함께 '이화인의 밤' 행사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대바자회' 평가에 앞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 준비와 홍보 및 참여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각 과(학부)와 대학(원) 및 지회 동창들과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영호(중문 85) 인문대 회장은 단과대학 별로 바자회 행사 전에 과별 부스 배치를 미리 의논하여 아이템별로 부스 배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교문에서부터 대바자회 장소를 안내하는 표시를 더 많이 해서 동창들이 장소를 몰라 헤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방문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배려한 품목 선정과 진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영선(장미 88) 조형대학 회장도 대바자회 안내 현수막을 정문 가까이에 게시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돋고 재학생에게도 홍보가 되면 좋겠다고 덧

붙였다. 이에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 홍보와 장소 안내를 위해 현수막 개수를 늘리고 이메일과 SNS를 활용한 홍보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화인의 밤' 행사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이화인의 밤' 행사를 11월 28일(월) 저녁 7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고, 이번 '이화인의 밤' 행사가 대강당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이철희(간호 88, 보건간호사, 캄보디아 선교사) 동창을 선정하였다고 보고하고, 행사 당일 대강당 입구에 성탄 분위기의 포토존을 마련하며, 모든 참석자에게는 동창회 수첩, 달력, 텁블러 및 간단한 떡과 물을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작곡 72) 감사는 모교 대강당의 구조와 여



10월 정기 임원회

건상 노래와 연주가 있는 2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음향과 영상 등 기술적 부분들은 정소희(작곡 89, 모교 겸임교수) 동창과 이주영(성악 04, 공연기획사 대표) 동창이 다양한 재능기부를 하여 행사 전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 안전으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차기 회장

단 추대위원 선임을 위한 선출위원회(회장, 부회장, 고문, 대학(원)별 동창회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를 구성하여 회장단 추대위원 7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으며, 회장단 추대위원회는 총동창회 임원 또는 대학(원)별 동창회를 통해 회장 후보를 추천받고 2023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고 보고했다.

■ 차기 총동창회 회장단 선출위원 임원회에서 보고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재학생과 동창을 애도하며 회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화인의 밤' 개최 여부에 대해 임원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행사 개최를 통해 장학금과 모교 발전기금을 후원한다는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행사 당일 ECC 주차장에서 나오는 문과 대강당 앞 계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내자를 두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12월 1일(목)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있음을 알리며, 각 과에서 현금위원 5인 이상 참석을 당부하고, 총동창회에서는 백설기 떡 1,500개를 준비하여 제공한다고 알렸다.

또한 제19대 총동창회 회장단 추대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선출위원회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고문 2명, 감사 2명과 박병희(약학 84) 약학대학 회장, 한은주(특교 79) 사범대학 회장, 최은희(종음 81) 음악대학 회장, 신영선 조형대학 회장이 추천되었다고 보고했다. 추대위원회로 선임된 7인은 12월 정기 임원회에서 인준하고, 추대위원회는 총동창회 임원 또는 대학(원) 동창회를 통해 회장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회장단이 선임되면 2023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고 알렸다.

■ 2022년도 마지막 정기 임원회 열려

2022년도 12월 정기 임원회가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 회의록 낭독 및 회계보고,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행사 전후 안전을 위해 경



12월 정기 임원회를 마친 총동창회 임원들

비업체의 도움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모교에서 안전과 주차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ECC 출입 시간제 한 없이 주차 가능하게 하고, 주차료도 2시간 비용만 받음)를 해줘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음향 및 출연자 등 공연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과 함께 '이화인의 밤' 행사를 월요일 저녁에 하는 전통 때문에 젊은 동창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고, 총동창회 임원을 통한 판매 외에 다양한 티켓 판

매 경로를 요청하기도 했다. 티켓 가격에 비해 훌륭한 공연의 수준과 선물 내용에 만족해했다는 동창이 많았으며, 다음 행사에서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 춤과 음악에 재능 있는 재학생을 출연자로 초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모교에 장학금 5,000만 원과 모교발전기금 1억 5,000만 원, 총 2억 원을 기부하였고 예년보다 5,000만 원 증가했음을 알렸다.

한편 성혜옥 선교부장은 '이화가족 성탄예배'를 통해 전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창 선교사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감사현금이 대폭 증가하였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타 안건으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11월 22일 (화) 총동창회 회장단 추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 11명이 논의한 결과, 회장단 추대위원으로 7명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임원들의 동의와 재정으로 인준되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부 소식

2022년 총동창회 선교부 가을 수련회를 마치고

2022년 9월 27(화)부터 28일(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광림 수도원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16:15)"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회원들이 수련회를 함께했다.

첫날의 백미였던 성경 지리 특강은 자체 강사로서 빛이 나는 시간이었다. 노현숙(사생 71) 전 사대 선교부장이 직접 그려온 세계 지도와 강의안을 통

해 세계의 기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지도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짚어갔다. 성경을 이야기 중심으로만 읽었는데, 이제는 지역 이름과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지명까지 좀 더 생각하며 읽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필기도구와 퀴즈 상품까지 준비해 온 섬세하고 완벽한 진행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영양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강의 시간이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

내드린다.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헨델의 메시아' 감상 시간이 이어졌다. 가사의 깊은 내용 까지 생각하며 곡에 대한 명상을 나누는 그 열정을 통해 헨델의 인생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고 믿음의 감성이 풍부해졌다. "Comfort Ye My people!"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으로 다른 이들의 평안에 기여하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11월 28일(월) 총동창회 주최 '이화인의 밤' 대강당 행사에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있는 대면 모임이고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다. 2,000여 명의 이화 가족이 이 모임을 통해 채플의 추억을 되살리고 이화 사랑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큐티 시간. 각자 4~5명씩 나누어 진 팀. 급히 꾸려진 팀이었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성향에 맞게 나누신 듯 그 스타일대로 어떤 팀은 생활을 나누고 어떤 팀은 뜨겁게 산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감상. 물론 1, 2편을 먼저 보았더라면 이해가 쉬웠겠지만, 채플을 학교에서 없애겠다며 도전하고 있는 모교 학부의 현 상황에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 꼭 보아야 할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며 고민하는 여학생. 그로 인해 헤어짐을 통보받은 남자 친구가 사고를 일으키면서 생긴 갈등과 해결의 과정들… 조용히 눈물 흘리며 동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는 말씀과 'Saint Jude church' 가 세워지는 결말을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광림 수도원 투어. 명칭의 이유, 각 예배당의 뜻, 액자에 숨겨진 이야기와 성찬실의 감동 등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귀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직접 만들어 온 쿠키와 간식, 점심 만찬과 티타임은 또 다른 선물이었다. 그렇게 이틀간의 수련회 일정은, 시종일관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의 축제 그 자체였다.

적은 인원이지만 조용히 중보기도 하는 마리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또 다른 동창 선교부원들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하고 싶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이화여대와 열방을 품고 조용히 무릎 끓고 중보기도 하는 사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욱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선포한다!

글·안영주(유교 88)



가을 수련회에 참석한 총동창회 선교부원들

'바늘이야기' 김보경 동창

K스타일 뜨개 문화를 선도하다



요즘 실로 뜯 미니 스웨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또 손재주가 전혀 없는 지인의 딸이 옷을 떠서 엄마에게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접한다. 심지어 회사 신입 남자 사원이 아이팟 케이스를 직접 실로 떠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의 중심에 김보경(경영 18) 동창이 있다. 김 동창은 대학 졸업 후 뜨개질 유통회사인 '바늘이야기'에 입사하여 주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구독자 27만 4,000명, 동영상 440여 개, 총 조회 수 3,500만여 회의 뜨개질 유튜브 '바늘이야기 김대리'를 운영하는 것이다.



뜨개 도안 수출, 온라인 강의 등으로 사업 다각화

뜨개질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인 '바늘이야기 연희점'에서 김 동창을 만났다. 1층은 뜨개와 관련된 각종 재료들과 샘플 뜨개 완제품들이 있는 매장으로, 구석구석 커다란 거울들이 있어 텔실이 본인에게 어울리는지 비춰볼 수 있다. 2층은 뜨개로 만든 소품들이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카페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커다란 텔실 뭉치에서 실을 뽑아가며 뜨개를 하는 사람들, 텔실을 앞에 놓고 뜨개옷의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에너지를 불어 넣는다. 3층에서는 강의가 진행된다. 10대와 20대는 물론이고 9세부터 70세의 뜨개인까지 수업에 참여한다. 3개의 강의실에서 10명 정원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4~5층엔 스튜디오와 사무실이 있다. '바늘이야기'는 김 동창의 어머니가 1998년 인터넷 뜨개 용품 쇼핑몰로 출발했고, 이후 일산, 서울 이대, 명동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파주에 본사를 두고 연희동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바늘이야기 연희점은 상징성이 큰 매장이에요. 사람들은 제 취미가 스노보드라고 하면 멋있다 하고, 뜨개라고 하면 시집 잘 가겠다고 해요. 그냥 여성스럽고 조신한 사람들이 하는 별거 아닌 취미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공간을 마련했어요. 멋진 공간에 제품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바늘이야기 연희점에서 고객분들이 뜨개 취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늘이야기'에서 김 동창은 마케팅, 해외 수입, 온라인 관련 상품 업로드, 온라인 아카데미 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맡아 한다. 최근에는 재고가 쌓이는 기존의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콘텐츠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실물 상품을 판매하는지라

재고를 보유하게 돼요. 물건은 계속 구입해야 하고 창고 공간에는 제한이 있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뜨개 도안 사업이에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부수적인 비용 없이 수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실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 결제하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머니 세대는 일본 뜨개질 책의 도안을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해외 도안에 의존하는 면이 있긴 해요.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 젊은 뜨개 작가들이 생겨 한국어 도안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한국어 도안을 판매해도, 베트남이나 일본 등 해외에 한글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어 도안을 구입해요. 일본의 뜨개가 전통 있고 섬세하고 어려운 것도 잘하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초보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 뜨개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뜨개에도 한국 스타일이 생겨나는 상황을 보며 김동창은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김동창은 지난 10월에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 론칭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바늘이야기 김대리’로 뜨개질 강의를 해서 ‘바늘이야기’가 알려졌는데, 사실 회사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에어팟 케이스 뜨기로 유튜브 시작해

김동창은 뜨개에는 뜻이 없었고, 대학교 4학년 때 나름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24년 차 회사인 ‘바늘이야기’는 직원들도 같이 나이가 들면서 트렌드를 따라 잡지 못하고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 고수해 뒤쳐진다는 느낌이 들었던 어머니의 제안이 있었다. “직원 중에 SNS 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젊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SNS만 한번 해 보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강인 요일에 출근해서 사진 찍고 SNS 올리는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뜨개질을 모르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살 것 같다든가, 이거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첨언만 했었어요.” 이후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경험 삼아 ‘바늘이야기’에 들어가 1년 일하다가 2018년 1월에 정식 입사했다.

입사 후에 원하는 뜨개 제품을 만들어 달라든가, 뜨개질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강사들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디자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었고, 동영상은 뜨개질 동작을 너무 빠르게 해서 따라 하기 어려웠다. “고수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몰라?’ 하는데, 저는 초보자들의 답답함을 공감하면서, 동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 주면 좋겠다 싶어 저도 잘 모르는데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어려운 것



대왕 털실 패션아란과 한 볼로 뜰 수 있는 제품들

은 일부러 잘 안 배워요. 조금 쉬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작하게 된 김 동창의 뜨개질 동영상은 뜨개 키트 제품 구매자들에게 제공되었다.

2018년에 에어팟 케이스를 뜨개로 떠서 파는 게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완제품만 있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김 동창은 선점해야겠다 싶어 밤새워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여 올렸다. 조회수가 꽤 높았고 관련 제품의 매출이 상승했다. 유튜브가 상품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운영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의 유튜브는 재미없는 홍보 채널 같아 제가 모델이 되었어요. 부르기 편하고 친근하게 ‘김대리’로 이름을 짓고,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시원하게 저를 드러내자고 생각했지요.”

김 동창은 혼자서 몇 사람 뜯을 했고, 입사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매출은 4배 이상 늘었다. “입사 초기에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올해 처음으로 이대 미대를 졸업한 후배가 디자이너 직원으로 들어와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제가 이대 후배들도 들어올 수 있는 회사로 올려놓았다는 뿌듯함이 있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김 동창도 실수가 있었다. 실을 잘못 수입해서 재고로 떠안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실 박람회에서 김 동창은 트렌드를 읽고 필요한 실을 구입한다. 페루, 남아공, 중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 수입하는데, 나라별로 특성과 배송 기간이 다르고, 회사별로도 조건들이 천차만별이라 각 회사의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실수가 있었다. 100g짜리 텁실을 수입해서 다른 회사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400g짜리로 잘못 주문한 것이다.

“그업체에서는 받을 수 없다 하여, 실의 사연과 함께 대왕 텁실을 아기처럼 안고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싸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느냐고 했더니 댓글이 100개씩 달리고 5분 만에 몇백 개가 완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왕 텁실의 인기를 확인하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대량 수입을 하기 시작했고, 이 실로 뭘 떠야 좋겠냐는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궁리 끝에 스웨터를 떠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 조회수 265만의 ‘대왕 텁실 패션아란 한 볼로 스웨터 뜨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탑다운 방식으로 뜨개옷 시장을 개척하다

“에어팟 케이스에만 집중했다가는 에어팟 케이스 크기의 회사밖에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옷 뜨기를 연구해 보니 새로운 방식이 개발되어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던 것이라. 제가 공부해서 해외의 기법들을 쉽게 풀어서 2020년에 우리나라에 소개했어요. 그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옷을 윗부분부터 뜨



MZ 세대 남성도 뜨개의 세계로 이끈 에어팟 케이스

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밑에서부터 떠서 올라가는 게 지배적인 방식으로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고, 힘들고, 예쁘지도 않아서 웃 뜨는 시장이 아예 죽어 있었지요. 탑다운 방식은 뜨는 도중에 수시로 입어보면서 소매나 웃 전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꿰매는 작업이 최소화 되어 있어 번거롭지도 않지요. 이렇게 웃 뜨개질을 시작했고, 제가 만든 도안들이 많아져서 이것들을 엮어 책으로 냈어요. 책을 번역해서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매출은 늘었고, ‘바늘이야기’는 최근에 취약계층과 미혼모 가정,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사랑의 열매 1억 원을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와는 20여 년 전부터 인연을 계속 맺어왔다. 기부뿐만이 아니다.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뜨개를 배워서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 주는 강의도 해요. 강의를 통해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하면 문화센터 등에 강의 나갈 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김동창은 학창 시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 도전했다. “대학 4학년 때 <커리어 탐색과 역량 개발>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조언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이후 회사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지요. 또 ‘도전학기제’ 참여로 값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실뭉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에 등록해 판매하여 목표 금액인 50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도전할 기회를 얻어, 성공과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에 사회에서 자리 잡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김동창은 후배들에게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능동적으로 찾아 많은 경험을 하기를 바라요. 공지사항 체크, 각종 장학금 도전, 특별 프로그램과 강연 참여, 강사님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하다 보면 어느 새 성장하고 있는 이화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니 이화의 힘이 느껴져요. 이화의 선배님들이 어디에든 항상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이화의 선후배님들이 사회에 있으니, 자신의 능력 개발에 힘쓰길 바랍니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바늘이야기’ 1층 매장에서 도안책 「탑다운」을 들고 있는 김동창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화의 기도처 술례 / 사범대학 기도실



사범대학 기도실이 있는 교육관을 찾아가는 길, 학관 공사로 인해 길을 좀 돌아가게 됐는데, 낙엽진 오솔길을 지나 희끗희끗 눈 쌓인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이화 동산의 초겨울을 느끼는 재미가 쏠쏠하다.

교육관은 붉은 벽돌 건물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A동 벽면에 붙은 낯선 글자가 시선을 사로 잡는다. ‘헤 알레데이아 엘류데로세이 휘마스(ή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οὐμάς).’(요한복음 8장 32절)

이 글자는 신약성서의 언어인 헬라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뜻이다. 1967년 교육관이 완공되던 해, 기독교 정신과 사범대의 역사적



헬라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문구가 적힌 교육관 A동 벽면



예비 교사들의 기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교육용 책자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다

사명을 고취할 상징적 문구를 찾고 있던 당시 김애마 사범대 학장은 김옥길 총장의 조언에 따라 성경의 이 말씀을 선정해 조각가 김정수 교수에게 작품을 의뢰했다고 한다.

기도실은 A동 6층 603호, 5층에서 내려 작은 복도를 지나 소박한 철제 계단을 몇 개 더 올라가면 다락방 같은 옥상 공간이 나타나는데 그중 한 곳에 있다. 문을 열자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라고 손글씨로 적힌 표지가 보이고, 손때 묻은 성경 시리즈 십여 권과 함께 『좋은 교사 시리즈』가 여러 권 꽂혀 있는 작은 서가가 한눈에 들어온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가능한 작은 책상에 놓인 수수한 전등 두 개, 작지만 벽면을 꽉 채우는 존재감 가득한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쁜 색지 안에 적혀 있는 아기자기한 벽면을 보고 있으니 이곳이 이화의 교육 인재들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수하지만 정갈한 이 공간에는 예비 교사들이 직접 쓰고 그리고 오리고 불인 핸드메이드 소품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아래층에서 기도실을 찾아갈 때부터 그리고 둘러보는 내내, 이 공간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5층 피아노 실습실에서 연주하는 예비 교사의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공간 까지 닿은 것 같아 마음이 따스해졌다. 그날 하루, 시골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온듯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범대 기도실이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 동산의 초겨울 정취를 느끼며 교육관 건물 옥상에 자리잡은 사범대 기도실을 찾았다

성경 번역을 향한 공동체의 열정

카니누와 번역팀의 주 번역자로 사역한 속테스 형제가 2022년 10월 4일(화)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카니누와 성경 번역을 향한 그의 마음 은 저희에게, 동료 번역자인 잭과 레비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카니누와 공동체 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1월 첫 주, 잭과 레비가 저희와 함께 마태복음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기 위해 알로타 우로 나왔습니다. 속테스의 장례식은 잘 치렀는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번역팀과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여려모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잭과 레비가 찍어 온 사진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님'을 여러 차례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장례식은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잘 진행이 되었고, 그의 무덤은 교회 예배당 옆에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씨족별로 묘지의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곳에 마련 한 이유는, 앞으로 지을 현대식 번역팀 교실 위치가 예배당 옆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새 교실에서 번역팀이 모여 번역할 때도 그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인 듯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속테스 자녀들이 아버지가 쓰던 책상과 번역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팀에게 아버지가 하시던 번역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번역팀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이 너무 낡았고 현대식 교실은 짓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할 교실을 속테스의 자녀들이 자원하여 저희 마을집 앞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속테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가족이었는데, 그가 떠났어도 그의 가족은 여전히 번역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속테스 형제는 2005년 이후 지난 17년 동안 카

니누와 성경 번역자로서 성실하게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의 그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한정된 지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선교사는 9~10월 6주간 온라인으로 성경 조판 강의를 잘 듣고 과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번역된 성경의 출판을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저희는 캐나다 서부의 앨버타주와 비씨주, 그리고



번역 자료를 전달하는 속테스의 가족들

미국 동부에서 동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동역자들을 만나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필요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바쁜 시간을 끼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베시베 마을에서는 카니누와 번역팀이 마태복음 초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고 자문 위원 점검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번역팀 스스로 초역을 마친 첫 번째 책이라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초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카니누와 어에 없는 단어들도 많아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책입니다. 잭과 레비의 인도 아래 번역팀이 요한계시록을 번역할 때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번역할 수 있도록 손 모아 마음 모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저는 일년 내내 여름인 파푸아뉴기니에 살다가 사계절이 있는 캐나다에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햇살에 비친 단풍을 오랜만에 마주하면서 이리 아름다워 도 되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벅찼고, 어느새 하

얗게 쌓인 눈을 보며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보내 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당연한 세상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사는 사람.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살후 2:16-17, 새번역)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이 11월 27일에 시작됩니다. 삶 속에서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통해 구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조선향(생명 95)



기 · 도 · 해 · 주 · 세 · 요

1. 이번에 점검한 마태복음(11~20장) 말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번역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할 때 마을 공동체가 잘 협력하게 하소서.
 2. 마을에서 요한계시록 번역을 시작하는 카니누와 번역팀이 먼저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번역하게 하소서.
 3. 저희 마을집 앞에 번역팀 교실을 짓고 있는 속테스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소서.
 4. 12월 마지막 주에 마을 교회에서 열리는 영성 수련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주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5. 내년 사역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월에 워클리프 캐나다 담당자와 만나 상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소서.
 6. 파푸아뉴기니 워킹 퍼밋과 비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워킹 퍼밋을 받고 1월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교 소식

최초의 여성 주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초청 특강 개최

모교 국제대학원(원장 Brendan Howe)은 9월 15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전 주한 미국대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브렌든 하우 국제대학원장의 개회사와 김은미 총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김은미 총장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의 시각에서 본 여성 리더십과 젠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글로벌 여성 리더를 꿈꾸는 이화 재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정치와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주한 미국대사로, 미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실 차관보 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차관보, 유럽 및 유라시아 문제 차관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글로벌 여성 리더다.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연을 시작으로, 최초의 주한 미국대사관 여성 정무관에 이어 최초의 여성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해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도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코

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모교와는 2008년 주한 미국대사 부임 당시에 이어 이번 두 번째 방문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와 외교에서의 젠더 : 미국과 한국의 관점(Gender in Politics and Diplomacy : American and Korean Perspectives)’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을 처음 겪었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0여 년을 돌아보며, 한미 양국의 정치·외교적 시각에서 본 젠더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모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손지애 초빙교수의 사회로 대담과 토론, 학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대학원 및 스크랜튼대학 재학생과 교환학생 등 150여 명이 참여해 한국과 미국에서 젠더와 여성인권 이슈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으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슈와 사



전 주한 미국대사 초청 특강

건을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특강 영상은 모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이화인의 저력, 국가고시에서 빛나다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구. 행정고시)에서 주요 직렬 수석합격자 2명을 포함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도 4명이 합격해 역대 최다 합격의 기록을 세웠다.

노인영, 이민영 재학생 수석 합격,

국가공무원 5급 공채 6명 배출

인사혁신처는 10월 3일(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최종 합격자 363명을 발표했다. 이중 5급 공채 일반행정 직렬 노인영(경제 17학번) 재학생과 교육행정 직렬 이민영(과학교육 23) 동창이 수석으로 합격해 여성 엘리트 공직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모교의 명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노인영 재학생은 3년간 수험생활에 매진한 끝에 일반행정직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노인영 재학생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하루하루 정해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 나간 것이 수석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교육행정직 수석을 차지한 이민영 동창은 1년 반이라는 비교적 짧은 수험기간을 보냈다. 사범대학 속으로 평소 교육환경과 교육기회에 관심이 많

았다는 이민영 동창은 “교사가 되어 교실 내 교육 환경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보다 큰 범위에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인내심과 사명감을 갖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밖에도 안지은(경제 15학번)·양한주(행정 16학번) 재학생이 일반행정직에, 윤다원(통계 18학번) 재학생이 재경직에, 박소희(독문 12) 동창이 국제 통상직에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도 역대 최다 4명 합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도 모교는 총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응시자 1,486명 중 40명이 최종 합격해 3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선발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은 소효진(영문 21)·박보미(경제 18)·정소연(사복 22)동창, 박소연(불문 14학번) 재학생은 향후 1년간 국립외교원 연수 교육을 거쳐 외교관으로 임용된다.

정소연 동창은 “3학년 때 경험한 외교부 서포터



국가고시 수석 합격자들

즈(Friends of MOFA) 활동과 사회복지학과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 교육 지원 사업 참여하며 외무공무원으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가고시준비반을 통해 동영상 강의 수강과 퍼센 모의고자 응시를 지원받고, 교수님의 모의고사 강평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도움이 됐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재개발원(원장 조일현)은 국가고시준비반 지도위원회(위원장 조정래)를 중심으로 교수 모의고사, 강평, 면접 지도를 비롯하여 합격 선배 멘토링 등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이화인의 공공 인재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국고고시 합격자 배출에서 국내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모교는 2013년도 외무고시 최연소 합격자 배출, 2015년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및 행정고시 교육행정직 수석합격자 배출,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명 배출, 2016년도 행정고시 재경직렬 수석 배출,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교육행정직 수석 배출, 2021년도 입법고시 와 5급 공채 동시 합격자 배출,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일반행정직 및 교육행정직 수석 배출 등 국고고시 여풍을 주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2022년 신임 법관 9명 배출, 전국 로스쿨 3위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현미)은 2022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배출 대학별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해 국내 최고의 법조인 배출기관으로서 모교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은 10월 5일(수)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35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이중 모교 법전원 출신은 9명으로, 전국 로스쿨 순위 3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를 전면 도입,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

2015년 첫 법관 배출 이래 모교 법전원은 매년 신임 법관을 배출해왔으며, 올해 역대 최다 9명 임

용을 기록했다.

이번 신임 법관 임명자는 이지숙(법전원 3기) 판사, 정소영(법전원 3기) 판사, 정혜원(법전원 4기) 판사, 이지은(법전원 4기) 판사, 이해인(법전원 5기) 판사, 전화정(법전원 5기) 판사, 김현정(법전원 6기) 판사, 김현주(법전원 6기) 판사, 이서영(법전원 6기) 판사이다.

2022년 로스쿨 출신 합격자는 81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54명을 크게 앞질렀다.

이들 신임 법관 임명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수료한 뒤 2023년 3월부터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모교는 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를 거쳐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했다. 선도적 여성 법학도들을 양성한다는 교육이념에 맞춰 그동안 모교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여성 법률전

문가를 배출해왔다.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고,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

에 힘입어 2018년에는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에 오르고 2022년에는 신임 검사 임용 인원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

2년 연속 6위

모교는 2021년 ‘인문사회 국내논문당 피인용’ 1위, ‘순수 취업률’ 5위로 2년 만에 진행된 중앙일보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종합평가 6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2년에도 교육 여건 및 학생교육 성과 부문의 약진을 보이며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에 이어 2년 연속 6위를 유지했다.

모교는 이번 평가에서 ‘인문사회 국내논문당 피인용’ 1위를 차지했으며, 학생교육 및 성과 부문 중 중도포기 학생비율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중도 포기율’에서 2위, ‘외국학생 중도포기율’에서 4위를 차지하고, ‘순수 취업률’ ‘유지 취업률’ 7위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유지취업률이 2단계 상승하며 7위를 기록했다. 모교는 학생들의 인적성에 맞는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학

생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입생 때부터 졸업 후 사회에 나갈 때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교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의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실제 캠퍼스와 가상 캠퍼스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취업 행사를 개최하고 상시 메타버스인 ‘인재개발ON’을 통해 온라인 채용 상담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메타버스 설명회와 병행하여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으며, 졸업생 현직자들이 참여하는 직무 스트리밍 멘토링 등으로 학생들의 호응과 참여를 얻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종합평가 교수연구 부문에서 ‘인문사회 국내논문당 피인용’ 부분 2년 연속 1위에 올라 모교의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수월성을 입증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교육학 분야의 논문 피인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평가에서도 인문계열 평가 5위, 인문계열 순수취업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이화가 가진 인문학의 저력과 융복합 역량함양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목표로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턴십 을 강화하는 등 대학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학생교육 및 성과 부문에서도 재학생당 기업 수, 재학생당 창업 전담인력 등 창업과 관련된 지표의 순위가 상승한 것은 그간 이화형 산학협력 구축과 세계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인재개발원

이화인이 함께하는 환경 축제 ‘이화 그린 페스티벌’

학생처(처장 박귀천) 사회봉사팀은 11월 16일(수) 교내 ECC에서 ‘이화 그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22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최근 재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기획부터 진행까지 준비한 환경 축제다.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이화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 등을 통해 1,0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환경과 이화 상징색을 중의적으로 나타내는 ‘이화 그린 페스티벌’은 ‘이화 그린’ 색상을 테마로 조성된 ‘이화 그린 파크’, 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 ‘이화 그린 토크콘서트’, 사회봉사팀의 봉사활동 및 환경 보호 전시장 ‘이화그린 갤러리’로 구성됐다.

김은미 총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하다”며, “이화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생태학자 최재천 초빙석좌교수가 ‘이화그린 토크콘서트’ 연사로 나서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재천 교수는 “기후 위기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위기를 잘 체감하지 못하나 이를 인식하는 순간은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이후일 수 있다”며,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이날 행사에 참가한 250명의 학생들은 편리한 삶을 위해 희생되

는 환경과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질문과 의견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화 그린 파크’에서는 면 팬티라이너 만들기, 태양광 랜턴 만들기와 같은 친환경 봉사활동을 비롯해 폐기되는 양말목을 활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플라스틱 컵뚜껑 폐기물로 생산된 친환경 컵 화분 만들기 등 생활에 밀접한 친환경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면 팬티라이너 만들기’ 봉사 체험을 통한 완성품은 사회적기업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기부돼 국내 및 해외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되며, 배터리 수명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태양광 랜턴은 이화인들의 손으로 조립되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해외 에너지 빈곤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푸드존, 게임존, 이벤트존 등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코너가 꾸려졌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스 참여 개수에 따라 ‘이화 그린’ 색상의 자체 제작 굿즈가 제공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장민지(사회과교육 21학번) 재학생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환경운동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의미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화인들과 함께 환경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과 학생들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자연과학대학

회장 __ 황복기(화학 83)

김장 나눔 행사로 사랑 전해

2022년 11월 7일(월), 자연과학대학 동창회는 경기도 양평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103명의 많은 동창들이 반가운 얼굴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동창들의 기부도 십시일반 더해졌다. 이를 포함해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에서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총 30가구에 10kg 씩 총 300kg의 김치를 이대사회복지관을 통해 기부할 수 있었다.

김장 나눔 행사 후에는 단풍으로 물든 용문사를 방문하여 진한 대추차 내음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웃음꽃이 가득한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한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의과대학

회장 __ 성시열(의학 81)

요트에서의 자유, ‘영닥터스 페스티벌’

2022년 9월 23일(토) ‘영닥터스 페스티벌’이 열렸다. ‘영닥터스 포럼’은 2009년 제17대 김태임(의학 74) 회장 때에 젊은 동창들의 유대 관계 형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동안 젊은 동창들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행사를 가졌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 2021년에는 줌(Zoom)으로 모였다.

2022년에는 양훈진(의학 95) 위원장의 아이디어로 포럼 대신 페스티벌로 준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진료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창들에게 잠시 일상을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 보았다.

동창 30여 명이 여의도 선착장에 모여 요트에 승선했다. 너무 반가운 해후! 의과대 재학생부터 졸업 30주년을 앞둔 선후배 동창이 서로 반기고 포옹하며 나누는 행복한 대화,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참 오랜만이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 물소리를 들으며 뱃머리를 무대로 양훈진 위원장의 플루트 연주와 조지희(의학 88) 재무이사의 요들송이 꿈결 같은 행복을 안겨 주었다. 이어 조지희 이사의 기타 반주와 최영아(의학

95) 동창의 키보드 반주로 함께 옛 노래를 부르며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 추억에 잠겼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어깨를 맞대어 앉은 동창들은 더욱 정이 깊어졌다. 마지막엔 함께 〈Y.M.C.A.〉를 부르며 리더를 따라 라인 댄스도 함께했다.

그렇게 어느 듯 2시간이 흘러 배가 부두에 도착하자 헤어지기 아쉬운 동창들은 석양이 보이는 카페에 다시 모였다. 몇 년 전 모교 창립기념일에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상한 최영아 동창의 노숙인 진료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지기도 하고, 한창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의 활기찬 삶에 도전과 용기를 얻으며 다음의 만남을 기약했다.



'영덕터스 페스티벌'에서 조지희·최영아 동창의 연주

간호대학

회장__변은경(간호 83)

속리산에서 간호대 동창회 단합대회

2022년 10월 27일(목) 간호대학 동창회 주최로 총 27명의 동창들이 모여 속리산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간 진행하지 못했기에 3회 이광옥(간호 61) 동창부터 40회 동창(간호 98)까지 선후배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였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한 동창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치렀다.



속리산에서 단합대회를 진행한 간호대학 동창회

단합대회 당일,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모여 편안하고 럭셔리한 버스로 출발하였고, 속리산 입구에서 시작되는 고목이 우거진 오리숲길을 걸으며 가을철 절정에 달한 단풍과 어우러져 빛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였다. 점심을 한우로 든든하게 먹고 나서는 완만한 오르막길을 올라 수많은 납작한 돌을 층층이 쌓아 독특한 성벽을 자랑하는 삼년산성에 도착했다. 가을 억새와 돌로 만든 산성이 어울려져 가을의 또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제법 넓은 성벽 위에서 선후배가 갖가지 포즈를 취하며 찍은 사진은 또 다른 추억이 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보은 선씨 종가 우당고택 안채에 모여 진한 대추차를 마셨고, 고즈넉한 한옥의 매력을 만끽하며 가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모처럼 아름다운 자연에서 만난 선후배들은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약학대학

회장__박병희(약학 84)

대한민국 최초 4년제 이화 약대의 자부심

매년 10월 이루어지는 정기 총회는 약학대학



정기 총회를 개최한 약학대학 동창회

동창회의 중요한 행사이다. 2022년 10월 25일(화)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59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재개된 제59회 정기 총회는 21~23기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 축하식도 겸하게 되어 그 의미가 상당했다.

77년이라는 학과 창립 역사 속에 많은 인재들이 이화 약대를 거쳐 갔다. 대표적 인물로는 김상희(약학 76) 국회의원과 서정숙(약학 74) 국회의원이 포진되어 있다.

김은미 모교 총장은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행림원 약학과로 출범한 약학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4년제 약학대학으로, 국내 최초·최고·최대 규모의 약학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이화 약대의 자부심을 말했다.

오찬 전에 이루어진 21~23기(1970~1972년 졸업)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 축하식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 <제비처럼>의 화음 등으로 호텔 행사장을 아름답게 하는 소리가 넘쳤고, 약대 학창단의 <오! 샹젤리제> 답가 역시 화답으로 훌륭했다.

행사 축사 역시 비전으로 모여진 메시지를 통해 이화 약대의 생생한 미래와 저력을 읽을 수 있었다.

박병희 회장은 정기 총회 축사로 “새 약대 종합

관 신축 계획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재도약의 새로운 시점”임을 전했다.

77년 이화 약대의 역사는 한국 약사의 미래와 연결되고 있다. 오랫동안 국민의 옆에서 헌신해온 1970~1972년 졸업 동창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_ 김상희(가관 81)

이화가정학 93주년 및 아령회 창립 70주년 기념 '아령인의 밤' 개최

생활환경대학 동창회인 아령회는 '이화가정학 93주년 및 아령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아령인의 밤&홈커밍 데이' 행사를 2022년 11월 2일(수) 이삼봉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선 학사부총장, 이해선 대외협력처장, 최남경 대외협력처부처장을 비롯하여 명예 교수, 전·현직 교수, 역대 임원진, 졸업 50주년 동창을 비롯한 여러 동창생,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특별히 모교에서의 홈커밍 데이로 이화 100주년 기념 박물관을 도슨트 설명과 함께 관람하고 아름다운 모교의 단풍을 투어하는 사전 행



'아령인의 밤&홈커밍 데이' 행사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사도 가졌다. 국가 애도기간인 관계로 전원이 검은색 리본을 달고 안상숙(식영 81) 동창의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박수를 자제하며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유정희(의직 83)·노남숙(가관 92) 동창의 사회로 박미경(의직 76) 동창의 특별 찬양, 김상희 회장의 인사말씀, 내외빈의 축하 인사와 격려사가 이어졌고, 70년 아령회 발자취를 회고하는 영상을 감상하고, 이봉화(가정 69) 동창이 그린 모리스 여사의 초상화를 모교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특별 공연으로는 아령합창단의 축하공연, 이샤론(가관 83) 동창이 이끄는 'Rose (Loard's) Garden'의 축하 콘서트를 연주했으며, 100여 건의 푸짐한 행

운권 선물 추첨이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친목을 다진 귀한 시간을 가졌고, 이화 졸업의 자부심과 사랑을 담아 교가를 부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고 이병림(가정 55)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행사를 10월 14일(금)에 이삼봉홀에서 진행하였다. 40년 세월을 교수, 가정대학 학무과장, 교학과장, 이대 사무처장, 총동창회회장, 부총장으로 이화를 위해 바친 이병림 교수를 추모하는 영상을 보며 고인의 이화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이병림 장학금' 1억 원을 모교에 기탁했다.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_홍성미(78)

'2022 영문인의 밤'에 참석하여 재학생들과 교류의 시간 가져

영어영문학과 동창회인 영학회는 2022년 11월 17일(목)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학부 재학생들의 '2022 영문인의 밤'에 참석하였다. 재학생 후배들에게 영학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영학회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부생 두 명에게 영학회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학생회와 Beings, Luminis 세 개의 동아



'2022 영문인의 밤'에서 학부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영학회 행사들을 소개한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리에도 지원금을 기탁하였다.

또한 홍성미 회장은 영학회의 날 행사, 춘/추계 강좌, 봄가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아우팅 등 영학 회의 의미 있고 즐거운 행사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불어불문학과

회장 __ 서동민(79)

졸업 40주년 동창들, 후배들에게 장학금 수여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 불어불문학과에서 도 아름다운 행사들이 있었다.

2022년에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22회 졸업생들 (1982년 졸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22기 대표로 김미숙 (82)·김유희(82)·이미화(82) 동창은 2022년 11월 11 일(금) 인문대 학장실을 방문하여 장학금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은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서동민 회장과 동창들은 대표 김수민 재학생, 연출 김홍비 재학생을 주축으로 11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공연된 불어 뮤지컬 <Rent>를 관람하고, 불어불문학과 연극반에 선배들의 격려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이지연(75)

2022년 송년모임

2022년 11월 28일(월) 오후 5시 모교 ECC 지하 4층에 위치한 닥터로빈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을 이어온 지 2년 만에 이루어진 송년 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회 졸업생부터 30회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21명의 동창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는데 1회 민용자(67) 동창은 “카르페 디엠 (Carpe Diem)”이라는 견배사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7시부터는 모교 대강당에서 ‘이화인의 밤’ 행사가 열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년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진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사학과

회장 __ 한상혜(73)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남도 유적 답사 다녀와

2022년 9월 22일(목) 인사동 뉴조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공백을 깨고 거의 3년 만에 열린 이날 간사회에서는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학과 동창회의 새로운 도약



남도 유적 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들

을 다짐하였다.

10월 27일(목) 인사동 뉴조에서 간사회를 갖고, 11월 28일(월) 열릴 예정인 ‘이화인의 밤’ 행사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11월 24일(목) 인사동 선천집에서 열린 간사회에서는 사학과 동창회 장학금 대상 학생 선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사학과 14회 졸업생(1972년 졸업) 18명이 졸업 50주년을 기념하여 학창 시절 들었던 〈한국미술 사개론〉 수업을 회상하면서 11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3박 4일 동안 남도 유적답사를 하였다.

답사 지역은 남원(실상사), 구례(운조루, 연곡사, 화엄사), 화순(고인돌 유적, 운주사, 쌍봉사, 보림사), 해남·강진(대홍사, 백련사, 다산초당) 등이다.

행정학과

회장 __ 임복희(93)

행정학과 창설 41주년 기념 행사 개최

행정학과 창설 41주년 기념 행사가 2022년 11월 8일(화) 18시 30분, 모교 ECC B4 극장에서 열렸다.

제42대 학생회 김은솔(재학생, 20학번)·장지민

(재학생, 20학번) 공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강민아(영문 88) 학과장의 개회사, 임복희 회장과 행정학과 교수들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행정학과 재학생과 졸업 동창들의 사연 전달 프로그램과 조택 교수님의 퇴임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간단한 석식 후 제2부에서는 퀴즈 및 행운권 추첨으로 마무리하였다. 약 1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행정학과의 힘찬 행보를 기원하였다.



‘행정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행정학과 동창들

사회학과

회장 __ 신혜령(75)

사회학의 밤 행사 개최

2022년 11월 10일(목)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사회학의 밤’ 행사가 있었다. 과 동창회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던 행사로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1부 순서로 환영사, 열린사회 돌아보기, 국제연구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다. 2부 순서에는 경품 추첨 이벤트, 선배들의 이화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 진행되었다. 선배와 후배가 어우러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유익한 정보로 가득 찬 행사에서 선배들은 후



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고, 후배는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축제였다. 또한 사회학과 동창회에서는 11월 17일(목)에 아산 외암민속마을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서울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 행사에 함께하며 다녀온 나들이로 따뜻한 날씨 속에 동창들이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물리학과

회장__ 이정신(89)

물리학과 견기 모임

2022년 10월 24일(월) 물리학과 견기 모임을 갖고 15명의 동창들이 참여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별히 ‘양자나노과학연구단 견학과 이화역사관 탐방’을 했다.

모교 캠퍼스 내 연구협력관에 위치한 양자나노 과학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 원(IBS) 소속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첫 5년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곳에서 재직 중인 김선희(09) 동창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견학으로, 이날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연구단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다수의 주사터널링현미경 실험실 참관을 하였다.

점심식사 후 ‘이화역사관’에서 도슨트의 해설로 이화의 역사를 들으면서 전시를 관람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 한인영(72)

강복순 동창 장학금 쾌척

2022년 9월 7일(수) 강복순(62) 동창이 사회복지학과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쾌척하였다. 강복순 동창은 2020년에도 1억 원을 기부하여 이번이 두 번째이다. 강 동창은 이화대학 장학후원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학과 교수들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1억 원 장학금을 쾌척한 강복순 동창



양자나노과학연구단 견학을 한 물리학과 동창들

동양화과

회장__ 이승은(89)

3년 만에 개최된 채연전

2022년 9월 22일(목) 열린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3년 만에 채연전을 개최한 동양화과 동창들

서 동양화과는 사전 온라인 판매에 이어 양윤정(96) 동창이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와 부채, 임원들이 손수 달인 맛간장과 각종 먹거리로 현장판매에 참여하였다.

한편 동양화과 동문전인 제39회 채연전 '희우(喜遇)'가 11월 1일(화)부터 6일(일)까지 모교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3년 만에 개최하는 뜻깊은 전시에 93명의 동창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11월 22일(화)부터 27일(일)까지 2022학년도 조형예술대학 졸업 작품전이 조형예술관, 세라믹홀, 이화아트센터, 이화아트 갤러리에서 열렸다. 동양화과 4학년 박송이 학생이 조형예술대학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다. 4학년 학생들의 넓은 기량과 수준 높은 작품성을 볼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한 졸업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식사와 산책, 전시 관람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 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으로 이동하였다.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야외 조각공원을 둘러보고, 미술관의 옥상정원에 올랐다. 호수와 산, 주변의 나무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연환경은 탄성을 자아냈다. 다양한 나무와 풀들 그리고 다양한 벤치로 구성한 공간인 정원 프로젝트에서는 미술과 어우러진 자연의 공간을 만끽하였다.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둘러보고 당일 예약한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에서 모네, 고갱, 피카소 등 대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였다. 야외 테라스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선후배가 예술과 인생에 대해 환담의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서양화과 동창회는 동창들의 전시회인 '이서전'과 '야유회'를 해마다 번갈아 가며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이서전'에 이어 2022년 '야유회'를 가진 것인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진행된 행사로 많은 동창이 모일 수 있어서 더욱 반가운 행사였다. 동창회에서는 모교의 교표를 기본으로 디자인한 에코백과 학교 아트 상품 등 기념품을 준비하였고, 동창들은 친숙하지만 자주 찾기 어려운 전시 공간을 산책하며 푸른 하늘과

서양화과

회장 __ 조은정(85)

정기 야유회 및 졸업 전시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서양화과 정기 야유회를 2022년 10월 20일(목)에 가졌다. 서양화과의 정기 야유회는 격년으로 진행하는, 선후배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서양화를 전공



야유회에 참석한 서양화과 동창들

상쾌한 바람, 짙어지는 단풍, 아름다운 작품들이 마음 가득히 들어온 하루를 맘껏 누리며 자연과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한 날이었다.

11월 22일(화) 오전 11시에 모교에서 졸업전 개막식이 있었다. 서양화과 동창회는 임원진들이 행사장에 화환을 선물하고 전시장을 방문하여 후배들과 방담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서 화업을 닦은 후배들은 이사회에 들어와 회원으로서 '이서전'을 함께하는 동료가 됨을 알려주었다. 또한 졸업생 중 1명을 선정하여 단체전을 열어주는 '비전 이화전'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작품들을 실견하여 1차적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동창회는 모교와의 돈독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재학생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젠을 중정한 바 있다.

조소과

회장 __ 박신정(85)

'젊은달 와이파크'에서 전시 관람

조소과 동창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조소과 선후배 동창 40여 명이 서울을 벗어나 영월의 '젊은달 와이파크'에서 가을을 느끼며 전시 관람의 좋은 시간을 함께했다.



영월로 나들이를 다녀온 조소과 동창들

섬유예술과

회장 __ 전영선(88)

제8회 이화섬유예술전

2022년 11월 8일(화)부터 12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제8회 이화섬유예술전 'Life With The Fiber Art'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60명의 동창 작가들이 함께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혼돈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가 되자는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의미를 둔 전시이다. 모교의 스승과 선후배 작가가 함께하여, 이화 전통의 혼을 이어받은 여러 세대 이화 섬유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전시였다.

섬유예술과 동창회 예미 임원진은 11월 3일(목) 오후 9시에 줌(Zoom)으로 이화섬유예술전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참석자는 전영선(88)·이상영(94)·이혜나(96)·최유리(96)·장해림(02)·안은선(07) 동창이다.

회의에서 동창들에게 예미전에 대한 홍보를 권장하였고, 전시 오프닝 준비 및 참석, 전시 설치 및 지킴이 등 전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예미전에 많은 동창들이 함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과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썼다.



이화섬유예술전에 참여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뉴욕 지회

회장__ 권순미(불문 85)

3년 만에 열린 연례 만찬

2022년 10월 16일(일) 뉴저지에 위치한 Double Tree by Hilton 호텔에서 3년 만에 뉴욕 지회 58주년을 기념하는 연례만찬을 열었다. 동창과 동창 가족 포함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가장 연장자인 장혜원(약학 50) 동창부터 예비 동창인 학부생들까지 참석했다. 그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를 접한 원희현(경제학과 17학번 재학) 재학생은 연례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서 뉴욕행 티켓을 끊어 눈길을 끌었으며, “멋진 선배님들을 만나 큰 사랑을 느꼈고 저도 다른 이화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찬 주제는 ‘응답하라 이화! 그때 그 시절’이었다. 모교 재학 시절의 의상을 입고 오는 이벤트와 세대별 동창들의 장기자랑이나 스피치를 나누



피크닉 모임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2일(토) 센트럴파크에서 김광희(화학 67) 동창의 가이드로 20여 명의 동창과 동창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가졌다. 연례 만찬과 마찬가지로 피크닉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김은자(영문 60) 동창부터 서채원(디자인학부 20학번) 재학생까지 여러 세대의 동창들이 참석했다. 특히나 여권운동에 앞장 선 실존 여성을 기리는 Women's Rights Pioneers 동상을 방문해 미국의 여성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회장__ 이승진(영교 84)

2박 3일 동안 알찬 일정의 동창회

2022년 10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독일의 중부 도시 카셀(Kassel)에서 2022년도 동창회가 열렸다. 오스트리아 빈(Wien)과 인스부르크,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쾰른,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등에 거주하는 동창들이 기차 또는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왔다. 카셀에 사는 송명래(독문 70) 동창의 따뜻한 안내를 받고 운치 있는 숲속에 위치한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참석자는 송명래·이숙희(사복 73)·남영우(약학 79)·이선희(철학 80)·이순애(체육 80)·유한나(독



독일과 오스트리아 각지에서 모여 만남을 가진 동창들

문 81)·고맹임(독문 82)·이승진(영교 84)·이은경(무용 85)·박상희(체육 96) 동창이다.

10월 7일(금) 저녁에 도착한 동창들은 송명래 동창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다. 10월 8일(토) 아침 식사 후, 5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 '도큐멘타'의 메인 전시장이기도 한 고풍스러운 오랑제리 궁전을 돌아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유럽 최대의 산상 공원이기도 한 빌헬름스회에(Wilhelmshoehe) 언덕에 올라가서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짊어진 마음으로 웃고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 후 오후 4시부터 회계 보고, 독·오 지회 아프리카 및 아시아 어린이 후원 프로젝트인 '이화 어린이 지원' 소개 및 현황 보고,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으로 진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화 어린이 지원' 프로젝트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7명의 동창이 참여하고 있다. 〈Plan International〉 후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열악한 거주 환경과 교육 재정 후원이 필요한 우간다, 케냐, 동티모르, 베트남 등 아프리카 및 아시아 어린이 10명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동창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홈페이지 개설과 그날

추천받은 6명의 각 지역 담당 동창들이 지역별 동창 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동창이 동창회에 참석하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기로 하였다. 이승진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준비해 온 먹거리로 매끼니 식사를 풍성하고 맛있게 먹으며 오랜만에 동창들이 만나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최혜영(생미 86)

지회 설립 25주년 기념 파티

1997년에 설립된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2022년 11월 12일(토) 오전 11시 30분에 일리노이주 세인트 클레어 컨츄리 클럽에서 세인트루이스 지회 25주년 기념 파티를 축하객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가졌다. 마치 이날을 축하해 주는 듯 첫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설정을 바라보며, 맛있는 식사와 경품 추첨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파티에 요양 중이면서도 늘 지회원들을 챙겨 주는 최경선(영문 62) 이사장이 부군 김승희 박사와 함께 특별히 자리해 주어 지회원들 모두 감회가 깊었다. 또한 김왕식 전 모교 교수 내외가 두 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와 함께하며 자리를 빛내 주었고, 이수자(가정 63)·정선주(성악 68) 동창이 음료수와 디저트를 제공해 주어 감사했다.



25주년 기념 파티를 개최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2020년 초에 진선미 플러스 기금을 시작한 후로 이화국제재단 세인트루이스 장학기금 적립이 예년에 비해 배가 되었는데, 25주년 기념 파티 티켓 판매 수익금도 이화국제재단 장학기금에 적립할 예정이다.



새 동창 환영회를 개최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워싱턴DC 지회

회장__최미나(관현 90)

새 동창 환영회로 친목 다져

2022년 9월 24일(토) 새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11명의 새 동창을 포함, 31명의 동창들이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새 동창들의 워싱턴DC 지회를 향한 바람을 들어보고, 적극적인 동창회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10월 27일(목)부터 LA에서 개최된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에 워싱턴DC 지회의 이사회와 동창회의 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워싱턴DC 지회의 활동 소식을 전했다.

워싱턴DC 지회는 각종 소규모 클럽 활동을 10월부터 온라인과 대면으로 시작하였다. 김귀현(영문 56) 동창 및 김정자(가정 62) 동창의 인도로 10월 22일(토) 팬데믹 이후 다시 모임을 가진 Knitting 클럽은 매달 모여 여러 작품을 구상하고 직접 만들어 필요한 동창 및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게 된다. 올해도 여성 홈리스의 재활을 돋는 쉘터인 Calvary Women's Services에 함께 만든 모자와 스카프를 동창회 기부금과 함께 전달하였으며, 동창회 총회 행사 전후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원과 새 동창에게 직접 아기용 담요를 짜서 선물하였다.

문화부에서는 이상명(커미부 01) 동창의 지도로 10월 26일(수)부터 2회에 걸쳐 온라인 운동모임을 진행하여, 운동과 좋은 정보를 나누며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되었다. 음악부에서는 주미향(피아노 00)·오헤리(피아노 05)·박나애(성악 10) 동창의 지도로 발성의 기초부터 합창곡을 매주 줌(Zoom) 및 대면으로 모여 연습하고 있다. 연습한 곡은 12월 10일(토) 워싱턴DC 지회 연말 파티의 무대에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보였다.

또한 한해를 동창들과 함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워싱턴DC 지회 총회 및 연말 파티가 12월 10일(토) '빛났던, 빛나는, 더 빛날 우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탈리아 지회

회장__김정임(대학원 88)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자긍심 느껴

2022년 11월의 마지막 날에 이탈리아 지회의 동창들 9명이 만났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 개인적인 사정들로 정식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박창성(식영 71) 전 회장의 수고와 주 교황청 한국 대사 부인인 송정원(영문 81) 동창의 배려로 주 교황청 한국 대사관저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



주 교황청 한국 대사관에서 모임을 가진 이탈리아 지회 동창들

는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신입 동창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 소개로 모임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 생활한 지가 50년이 된 동창부터 유학을 온 어린 동창까지 연령층은 다양 했지만 낯설기보다는 같은 교정에서 공부한 동창들이라 처음 만남 같지 않게 서로 반가웠다. 이후 2023년 이탈리아 지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으로 김정임 동창을 회장으로, 채현숙(영문 95) 동창을 총무로 선출하였다.

3년간의 긴 코로나19 시기를 벗어나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이탈리아처럼 동창회도 점차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다짐 후에 송정원 동창의 사랑과 배려로 마련된 맛깔스러운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동창들은 한식 구가 된 것같이 친근해졌다.

식사를 하면서 동창들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중 송정원 동창이 이탈리아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연 말에 귀국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김미란(철학 88) 동창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 문화를 위한 사업으로 '빌라 토지(Villa Toji)' 개업 준비를 위해 로마의 가장 아름다운 호수인 브라치아노 호수 근교에 아름다운 로마식 정원을 갖춘 건물을 수리하여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우혜경(성악 11) 동창은 음악회를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지회 동창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

으로도 동창들의 음악회나 다양한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한인 사회의 주요 비즈니스인 관광사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후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탈리아인들의 관심이 수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확대된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로마에 있는 한국 문화원의 프로그램과 행사에 보여 주는 이탈리아인들의 열렬한 관심과 한글학교의 이탈리아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에 신청하는 성인 학생들의 수가 급증한 것들이 좋은 사례다. 고국의 문화가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동창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지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동창들을 찾아서 연락처를 공유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일본 지회

회장 __ 고정희(장미 74)

이태원 희생자 추모 분향소 설치

2022년 11월 2일(수) 일본 도쿄 한인타운 신오쿠보에, 동창회 자문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재일본 한국인연합회 김운천(평교원 96) 회장이 이태원



재일본한국인연합회에 설치된 분향소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사단법인 한인 회의 회원, 사단법인 사랑의나눔 봉사단체 회원들, 일본 지회의 이화 동창들과 한류 문화의 많은 일본 팬들이 이태원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기원하면서 정성껏 헌화를 하였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__이익범(국문 85)

송년 모임으로 2022년을 훈훈하게 마감

2022년 12월 5일(월), Mulia 호텔 내 The Café 레스토랑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신입 회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선후배 및 동기 간 담소를 나누었다. 연말 선물과 이대 달력, 수첩을 나누며 2022년 동창회를 훈훈하게 마감했다.



송년회에 참석한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진주 지회

회장__염선행(생미 83)

부자마을로 유명한 승산마을 탐방

2022년 11월 9일(수) 진주 지회 정기 모임으로



진주 승산마을 탐방을 다녀온 진주 지회 동창들

승산마을(일명 부자마을)에 다녀왔다. 오명옥(사학 90) 동창의 안내로 지수초교의 K기업가 정신센터, 상남관(도서관), 부자나무(구인회·이병철·조홍제 창업주가 심은 나무), 승산마을의 고택을 탐방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업 창업주가 3명이나 나온 승산마을은 김해 허씨와 능선 구씨가 300년 이상 살아온 유서 깊은 마을이라 했다. 그날은 허남보(허승효 회장 생가 관리자) 씨를 만나는 행운으로, 미공개 집터인 허씨 고택까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가을 단풍까지 물든 11월의 승산마을은 나즈막한 담장과 골목길 하나하나가 정겹고 사랑스러웠다.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한옥 게스트 하우스에 우리도 1박 2일을 해보자는 즉석 제안에, 모두들 박수로 답하였다. 지수초교와 승산마을이 진주를 대표하는 컨텐츠의 하나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에 들뜬 하루였다.

파리 지회

회장__박현선(의직 91)

대선배들과 함께한 추석 모임

2022년 9월 20일(화) 파리 15구의 만나식당에서



추석 모임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추석 모임을 진행하였다. 매년 추석 때면 멀리 외국에서 고향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기 위하여 우리 동창들은 함께 모여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한동안 코로나19로 모임을 취소 혹은 축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봄 야유회를 시작으로 차츰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만에 진행한 이번 추석 모임에 이충석(심리 56)·민경화(국문 62)·이병주(불문 62)·황란서(융합보건 70)·오미자(불문 73)·장옥희(심리 73)·박경애(불어교육 76)·함미연(불문 81)·홍성부(생미 83)·박현선(의직 91)·박세연(서양 94)·이수진(사회과교육 02)·안정아(건축 06)·김윤정(국제학부 07) 동창이 참석하여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들과 그간의 안부를 묻고 정갈한 한식 및 송편과 함께 고향의 따뜻함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이 되었다.

각품들이 실체인 듯 착각마저 들었다. Johnson & Johnson Family의 슈워드 존슨의 조각 컬렉션에서 시작된 이 작품들은 세계적인 명화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여러 예술가들의 인상적인 조각품들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어 동창회 하루 나들이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대 필라델피아 중창단은 동창회 안의 소모임으로 여름 중간에 시작하였다. 매주 한 번씩 동창 및 이대 사위들도 함께 모여서 양경자(성악 65) 동창 지휘 아래 열심히 배워 나가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동창들이 노래할 땐 '행복' 감을 공유하며 많이 배우고 웃음 가득한 소모임이다.

11월에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돌아보기 위하여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의 이대 기념품점 상점에서 두 가지를 골랐고, 우리 생활에 늘 필요한 카드들을 동창들에게 알렸다. 동창들의 좋은 참여로 모금된 돈은 필라델피아 지역의 마약 중독 청소년을 돋는 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조각공원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오성실(영문 68)

자연과 어우러진 조각 감상

2022년 10월 동창회 모임으로 뉴저지에 있는 '조각공원'에 다녀왔다. 막 단풍이 시작되는 좋은 가을 날씨에 공원 숲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조

홍콩 지회

회장__한유미(융합보건 90)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의 복귀

2022년 초부터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해 움츠렸던 홍콩은 정부의 점진적인 규제 완화로 하반기부터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다. 위축된 분위기로 인해 홍콩 지회는 6 월이 되어서야 2022년 첫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홍콩의 여름이 끝나가는 10월, 홍콩 특유의 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Fringe Club의 중식당에서 올해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동창들은 미식의 천국 홍콩의 대표 음식인 덤섬을 함께 나누며, 길고 다채로웠던 휴가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실감했다. 홍콩의 1970~80년대 분위기를 재현해 놓은 듯한 식당 내부 콘셉트와 오랜 세월을 홍콩에서 보낸 선배들의 지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어느 오후였다.

한 달 뒤 11월, 홍콩의 따뜻한 가을 햅볕과 선선

한 바람, 바다의 푸른 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Repulse Bay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제는 아주 오래된 인연들, 그만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넘치는 홍콩 지회 동창들. 한 달에 한번,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모임을 가지며 서로를 위한 헬링 타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 홍콩 지회 동창들

동 창 근 황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김경자(가정 59) 동창

김경자 동창이 3대 신사임당상을 수상하였다. 신사임당 사모회가 주최하고 율곡연구원이 후원하는 제3대 신사임당 대관식은 2022년 7월 2일(토) 미국 산호세 산장식당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경자 동창은 성신여대에서 교수로 20년간 재직하였고, 퇴직 후에도 성신여대 가정학과에 '김경자 장학금'을 신설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김경자 동창

달식은 2022년 11월 21일(월) 모교 본관에서 열렸다. 미국 보스턴에서 50년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귀국한 김현순 동창은 조카인 이동귀(독문 74) 호산나대학 학장의 권유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김현순 동창

밝혔다. 김은미 모교 총장은 "후원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인재들이 본국에서 여성 리더로 활약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현순(법학 60) 동창

김현순 동창이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EGPP 김현순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기금 전

김은희(서양 58입) 동창

김은희 동창이 GS칼텍스재단 소장품전으로 2022년 11월 11일(금)부터 12월 18일(일)까지 개인전을 가졌

다. 2020년 GS칼텍스재단에 기증한 작품 197점 중 100점과 신작 1점, 수채화 드로잉 16점을 포함한 117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생명’이라는 주제와 생명력을 더욱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해 긴 시간 자연을 체험하며 작품을 제작해 온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전시였다.



김은희 동창

송창주(가정 62) 동창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이준열사기념관 관장 송창주 동창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을 찾아 후손들에게 유럽에 있는 유일한 역사기념관인 이준열사기념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송창주 동창은 이준 열사 숙소를 사비를 들여 헤이그시로부터 구매해 기념관을 설립, 27년째 관장을 맡고 있다.



송창주 동창

최구자(서양 65) 동창

2022년 9월 2일(금)부터 5일(월)까지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2022 KIAF & UK Fries 전’에 조선화랑 초대로 참가했으며, 10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인사동 가나인 아트센터에서 회고전을 가졌다. 14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학부 시절 작품 2점을 포함하여 총 60여 점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전시하여 그간의 화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최구자 동창

김혜순(섬예 66) 동창

2022년 10월 1일(토)부터 3일(월)까지 경복궁 자경전에서 한국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9명의 합동 시연 행사 ‘잇는 사람,



김혜순 동창

잇는 시간, 잇는 스토리’에 참여하였다. 매듭장 김혜순 동창은 단작노리개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여 매듭의 전통 기법을 선보였다.

유신애(의학 69) 동창

유신애 동창이 ‘자랑스런 이화의 인 박에스더 상’의 제10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23년 3월 4일(토)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이화의대 동창회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화의대 동창회는 70세 이상의 동창회원 중 학술, 진료, 봉사 활동으로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동창에게 매년 1회 상패와 금메달을 수여한다.



유신애 동창

강승애(서양 72)동창

강승애 동창이 2022년 10월 12일(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제57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에서 제34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을 수상했다. 강승애 동창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부회장,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상형전 자문위원을 포함해 녹미미술협회 이사, 한국미술협회, 한국수채화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승애 동창

박명숙(무용 72) 동창

서울댄스씨어터 예술감독 박명숙 동창이 현대무용극 〈에미母 Emi ; Mother(이하 에미)〉(총예술감독 및 안무 박명숙)를 2022년 11월 24일(목)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공연했다. 박명숙 동창은 지난 40여 년간 ‘박명숙 무용단’을 이끌며 2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경희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박명숙 동창

한수영(섬예 72) 동창

한수영 동창의 자수 작품이 '생활 속 아름다운 한국자수'를 주제로 북촌 작은 쉼터 갤러리에서 2022년 11월 15일(목)부터 20일(화)까지 전시되었다. 한국의 전통 자수 중에 궁중 자수의 색채와 섬세한 기법을 보여 준 한수영 동창의 작품들은 한옥의 공간과 어우러져 한국의 미를 선보였다.



한수영 동창

한인영(사복 72) 동창

한인영 동창이 2022년 10월 27일(목) 열린 국제사회복지학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더 나아가 저개발국가의 사회복지 역량강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한인영 동창

장연순(생미 73) 동창

2022년 11월 8일(화)부터 12월 11일(일)까지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중국의 도예가 류단화와 함께 2인전 '움직임의 무게' 특별전을 가졌다. 장연순 동창은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2018년 로에베 공예상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며 한국 섬유공예를 대표해 왔다.



장연순 동창

장우현(제약 74) 동창

약사 장우현 동창이 뇌병변 장애 환자들을 위해 푸르메재단에서 2022년 11월 24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3주간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는 소화기 관련 건강, 관절 관련 건강, 성인병 관련 건강을 다루



장우현 동창

었다. 이번 강의는 장우현 동창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장우현 동창은 경희대 약대와 이화여대 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용산구약사회총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미연(동양 76) 동창

이미연 동창이 2022년 10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 롤랑에서 초대전 '들숨, 날숨 (Inhalation, Exhalation)'을 열었다.



이미연 동창

이나경(서양 77) 동창

전라남도 여수의 도성마을에 소재한 에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에그갤러리는 치료된 한센병 환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도성마을 전화국을 개조하여 전시 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2022



이나경 동창

년 10월 22일(토)부터 11월 24일(목)까지 예정되었던 전시는 성원에 의해 11월 30일(수)까지 연장 전시를 하였다. 또한 11월 16일(수)부터 20일(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아시아 아트 쇼>의 'Special Booth'에 한국 대표작가로 초대받아 전시에 참여하였다.

조한희(과교 77) 동창

한국자연사박물관장 조한희 동창이 2022년 10월 24일(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박물관협회 임시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한희 동창은 2023년 1월부터 4년간 협회를 이끈다. 조한희 동창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충남박물관·미술관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뮤지엄경영·마케팅학회 회장, 한국자원활용과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조한희 동창

김희경(조소 79) 동창

2022년 9월 15일(목)부터 30일(금) 까지 김희경 동창의 초대 개인전이 '생명의 파동, 그 올림의 변주'라는 주제로 오페라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김희경 동창

는 2025년 9월 말까지 3년이다.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이사장에 여성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희 동창은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문화재청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원광대 박물관장, 원광대 인문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조기주(서양 79) 동창

단국대 명예교수 조기주 동창의 미디어아트 개인전 '나를 만드는 삶의 흔적(The Stains of Life in Action)'이 2022년 9월 1일(목)부터 15일(목)까지, 서울 강남의 세 장소 – 압구정로데오역 2번 출구 앞 미디어스트리트, 청담사거리 어반프레임, 세곡동 사거리 어반클라우드에서 열렸다. 조기주 동창은 미디어스트리트에서 기존의 평면 작업 5개의 이미지를, 어반프레임에서 청동 작업 이미지를, 그리고 어반클라우드에서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여 선보였다.



조기주 동창

이순애(체육 80) 동창

이순애 동창이 본인의 소설『프란체스카 리 스토리』(랜덤하우스, 2005년)를 독일어로 번역한『Franziska』를 2022년 10월 오스트리아 빈(Wien)의 Ritzberger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2022년은 한



이순애 동창

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대한민국 초대 퍼스트레이디 프란체스카 여사가 태어난 곳이라 독일어판『Franziska』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김정희(사학 80) 동창

원광대 명예교수 김정희 동창이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신임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임기



김정희 동창

정성숙(무용 80) 동창

정성숙 동창이 국립정동극장 신임 대표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이다. 정성숙 동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이수자이며 전통공연예술



정성숙 동창

이화의료봉사회

이화의료봉사회(회장: 성시열 의학 81)가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단체로 선정되었다. 이화의료봉사회는 모교 의과대학 동창회가 발족한 순수의료봉사단체로 2011년 결성되었으며, 서울시 '청소년 쉼터'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각종 전문과 진료와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참의료인상은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와 수상단체는 각 2,5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은 2022년 12월 5일(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진홍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문화재청 서울특별시·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우리춤협회 부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영순(섬예 80) 동창

2022년 10월 12일(수)부터 29일(토) 까지 갤러리마노에서 기획초대전 'Remembrance'를 가졌다. 차영순 동창은 전시에서 'Architexture'와 'The Code'의 두 축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였다. 'Architexture'는 직조 위에 도시의 찰나적인 이미지를 스티치로 드로잉 한 작품들이며, 'The Code'는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흑, 백, 청색의 한지를 꼬아 콜라쥬하여 제작한 추상작품이다.



차영순 동창

유한나(독문 81) 동창

유한나(본명 최소은) 동창이 한독 대역 시조집 『150 Sjö-Gedichte』를 독일 Edition Delta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한국 대표시조 150편을 독일어로 번역한 이 시조집은 대산문화재단 번역지원금을 받아, 시조시인 이지엽 경기대학 교수가 엮은 『세계인이 알아야 할 한국의 시조』를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유한나 동창은 2022년 9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2022년도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뽑혔다.



유한나 동창

나효신(작곡 82) 동창

나효신 동창은 현재 San Francisco Artist Grant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 12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쓰고 있다. 이 작품은 2023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의 오울드퍼스트 콘

서트 시리즈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세계 초연될 예정이다. 작곡가 나효신 동창은 1994년에는 대한민국작곡상 양악부문에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작곡상 국악부문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 미



나효신 동창

국작곡가협회가 수여하는 ASCAP Plus Awards를 199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연속해서 받아오고 있으며, 한국과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여 2021년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하였다.

염선행(생미 83) 동창

2022년 10월 1일(토)부터 15일(토) 까지 진주 소재 갤러리아 G.gallery에서 8번째 개인전 '도시 이야기'를 가졌다. 도시에 존재하는 사물들과 계절의 변화, 사람들의 활기찬 일상과 긍정적인 삶을 표현한 30



염선행 동창

여 점의 신작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일상이 회복되어가는 도시 풍경을 그려냈다.

이인혜(서양 84) 동창

2022년 9월 17일(토)부터 10월 8일(토)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천면 도성마을에 소재한 에그갤러리에서 초대전 '벗간이 사람들'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인혜 동창은 아주 작은 남쪽 섬인 횡간도(옛 이름 벗간이) 주민들을 작품에 담았다. 도성마을은 우리나라 최초 한센인 마을로 아직도 한센인 2세대가 살고 있다. 이번 전시로 몸이 불편해서 외부와 단절된 주민들에게 이웃 섬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림을 보여 줌으로써 치유와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하였다. 전시가 끝나고 이인혜 동창이 그린 65명의 횡간도 주민의 인물 작업은 횡간도 섬의 인생 박물관에 모두 무상 기증하였다.



이인혜 동창

김연숙(서양 85) 동창

2022년 9월 14일(수)부터 26일(월) 까지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아트센터 제주갤러리에서 ‘은하수를 불잡는 산, 한라산’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가졌다. 제주도에 거주 하며 제주도를 그리는 작가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한라산과 ‘은하수를 불잡는 산’이라는 뜻을 지닌 우주적 공간에서의 한라산을 상기시키는 회화 작품, 스케치 영상을 선보였다.



김연숙 동창

김용복(무용 85) 동창

김용복 동창은 2022년 11월 17일 (목)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대가야 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공연된 경북 도립무용단 창작신작 <비몽—두 개의 달>에서 총 연출 및 안무를 맡았다. 김용복 동창은 지난 2020년 제2대 경북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로 위촉되었다.



김용복 동창



박선민 동창

박선민(식영 85) 동창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선민 동창이 제8회 대상한림식품과학

상을 수상하였다. 박선민 동창은 대사성 질환의 완화·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법 연구와 전통식품인 장류의 효능 입증 연구 등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박인옥(서양 85) 동창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담스튜디오에서 2022년 10월 31일 (월)부터 11월 6일(일)까지 19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전시 주제는 ‘은빛 모래, 옥색 바다, 가족, 평화의 비둘기’였다. 가족이 쉬러 간 제주



박인옥 동창

도에서 제주의 자연을 닮은 옥색, 푸른색 작품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손지애(정외 85) 동창

2022년 11월 21일(월) 전 CNN 서울 자국장 손지애 동창이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직 명대사에 임명되었다. 대외직명 대사는 전문성과 외교 활동 능력을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손지애 동창은 문화협력대사로 임명됐다.



손지애 동창

이화퀼트

2022년 10월 4일(화)부터 8일(토)까지 모교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이화퀼트’의 다섯 번째 전시 ‘이화퀼트 전(展) – My Place In The Puzzle’이 개최되었다. 이화퀼트는 201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매해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제5회 이화퀼트 공동작의 주제는 ‘나눔과 채움’이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의 빈 곳을 채워 주며 한데 맞물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 내가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내 작품의 한 부분을 다른 이에게 내어 주고, 비어 있는 부분을 다른 이의 작품으로 채우는 작업을 선보였다. 33명의 동창이 공동작에 참여했는데, 각자 다른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작업한 퍼즐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잘 맞물려 훌륭한 공동작이 만들어졌다.



신미선(서양 85) 동창

2022년 7월부터 개관한 김영모갤러리의 관장직을 맡으며 기업과 예술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전시기획을 하고 있는 신미선 동창이 '여행자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제20회 개인전을 하였다. 2022년 9월 6일(화)부터 10월 2일(일)까지 김영모갤러리에서 가진 전시에서 신미선 동창은 일상의 삶을 여행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다양한 모습으로 마주해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는 작업들을 선보였다.



신미선 동창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벽면 곳곳에 빛을 드리운 정경미 동창의 스테인드글라스는 교회의 상징적인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정엽(서양 85) 동창

정정엽 동창이 제34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을 기념하여 2022년 11월 24일(목)부터 12월 6일(화)까지 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전시를 가졌다. 전시 개막식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이 밖에도 정정엽 동창은 '매일 매일 내일-도래할 풍경 2022'(9월 23일(금)부터 10월 16일(일)까지 제주 돌문화공원, 10월 20일(목)부터 11월 6일(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 '에큐메니컬'(10월 5일(수)부터 10일(월)까지 경인미술관), '열린결말전'(10월 15일(토)부터 징검다리미술가게 온라인전), '증언을 말하다'(10월 26일(수)부터 11월 5일(토)까지 갤러리 미 서울), '난다:D'(11월 1일(화)부터 6일(일)까지 미술관가는길) 등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정엽 동창

이현숙(조소 85) 동창

2022년 9월 19일(월)부터 10월 18일(화)까지 도봉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11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남송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이현숙 동창

이혜정(서양 85) 동창

2022년 10월 21일(금)부터 11월 1일(화)까지 광명시 구름산 자락에 위치한 아우름 갤러리에서 제8회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루시부파긴을 잡아먹는 밤'이라는 주제로 모든 사물에 깃든 내면의 빛을 단순화된 선과 색채로 형상화한 작품 세계를 보여 주었다.



이혜정 동창

조은정(서양 85) 동창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는 조은정 동창은 2022년 9월 1일(목)부터 10월 30일(일)까지 롯데백화점갤러리에서 열린 '재현과 재연'의 전시 감독을 맡았다. 이 전시회에서 조은정 동창은 회화 근대 작가 42명과 현대 작가 40명, 조각작가 23명 총 105인의 작품 140여 점을 방대하게 아우르며, 오늘날 구상 미술이 지닌 의의를 심도 있게 짚어 보았다. 전시는 3개의 테마전으로 롯데백화점 본점, 애비뉴엘, 동탄점, 인천점 등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근현대미술연구소 위원으로서 '세종시립 장육진기념관 전립학술대회' 조직을 맡아 11월 25일(금) 학술행사를 진행하였다.



조은정 동창

정경미(서양 85) 동창

정경미 동창이 2022년 11월에 울산감리교회 12개 창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완성, 설치하였다. 무거운 교회 내부에 빛을 끌어들이며 도시의 창밖을 내다보는 느낌을 주는



정경미 동창

이정애(경제 86) 동창

LG생활건강(LG생활건강)의 음료 사업부장(부사장)을 맡고 있던 이정애 동창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CEO로 내정되었다. 이로써 이정애 동창은 LG그룹 내 '여성 CEO 1호'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정애 동창은 LG생활건강 신입사원 공채 출신으로 2015년 화장품 사업부장을 맡은 뒤 '후', '숨', '오페' 등 최고급 화장품을 연달아 런칭하며 LG생활건강 화장품 제품의 고급화를 이끈 일등 공신이다.



이정애 동창

의 (재)발견: 몸, 집, 땅'에서 작품이 전시되었다.

양선희(정외 87) 동창

전 서울YWCA 사무총장 양선희 동창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제4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2022년 11월 15일(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열렸으며, 임기는 2024년 11월 15일까지 2년간이다. 양선희 동창은 서울YWCA 사업국장과 사무총장, 강남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재직하며 여성과 청소년 분야 모두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양선희 동창

홍현애(조소 86) 동창

미주와 홍콩, 한국 등을 무대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홍현애 동창이 모교에 〈Window in Heaven Trilogy〉 작품을 기증하였다. 홍동창이 기증한 작품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지하 1층 기증 전시실에 설치하였다. 최근 작품을 기증하려 한국을 방문한 홍현애 동창은 학창 시절 공동으로 제작한 졸업작품이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으며, 모교 측에서도 작자 미상으로 알고 있던 작품의 작가를 찾게 되어 기뻐했다고 한다.



홍현애 동창

장혜숙(서양 87) 동창

국제교류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국제 아트페어들에 외국 작가 초대전을 기획하는 장혜숙 동창이 2022년 9월 30일(금) '고양국제아트페어'에 우크라이나 작가 초청전을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작가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장혜숙 동창도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를 주제로 개인부스 초대전으로 동참하여 두 나라의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였다.



장혜숙 동창

손은영(서양 87) 동창

2022년 9월 17일(토)부터 10월 16일(일)까지 부산 수영구 망미동 F1963 석천 홀에서 개최된 제6회 2022 부산국제사진제에 작가로 초대되었다. 부산국제사진제의 주제는 '살과 돌'로, 도시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의 책 『Flesh and Stone』에서 가져왔다. '살'은 육체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삶의 모습을 은유하며, '돌'은 집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로 삶의 공간을 뜻한다. 주제전 '살과 돌'에서 돌 부분 '일상



손은영 동창

최지영 (독문 87) 동창

최지영 동창의 학술 논문 「독일어와 한국어의 비활용형 구문(Inflektivkonstrukti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이 독일 《Deutsche Sprache-Zeitschrift für Theorie, Praxis, Dokumentation》에 실렸다. 독일의 '국립국어원' 격인 독일 최고의 국립언어연구기관의 저널에 독일 순수 언어학을 주제로 한 외국 학자의 논문이 이 실리는 건 이례적인 일로써 매우 영예로운 일로 평가받는다.



최지영 동창

박은덕(서양 89) 동창

2022년 11월 11일(금)부터 18일(금) 까지 서울아산병원 갤러리에서 기획 초대전을 열었다. 박은덕 동창의 일곱 번째 개인전인 'Time Series Data'에는 포토콜라주 작품 약 30여 점이 전시되었다. 직접 다녀온 여행지나 일상을 기록한 여러 사진들을 중첩 시켜서 상상 속의 가상 풍경을 회화적으로 만들어 낸 포토콜라주 작품은 마음이 힘들고 몸이 어려운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상상을 제공하였다.



박은덕 동창

윤순란(섬예 89) 동창

모교 섬유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순란 동창은 2022년 10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무목적 갤러리에서 개인전 '시대의 소홀'을 가졌다. 윤순란 동창은 하얀색 가느다란 끈으로 짜여진 인체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과 고뇌하는 존재성에 대해 표현하면서도 사람은 타자와 연결되어야만 나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윤순란 동창

한여옥(서양 89) 동창

2022년 10월 21일(금)부터 26일(수) 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혜화아트센터에서 제9회 개인전 '기억 속의 시간을 찾아서'를 가졌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일상의 이미지를 찾아 하나씩 꺼내며 일기 쓰듯 그려내었다.



한여옥 동창

박효정(조소 90) 동창

2022년 11월 2일(수)부터 22일(화) 동산방 갤러리에서 개인전 'Bright Matter—At His Garden'을 가졌다.



박효정 동창

장선아(조소 90) 동창

2022년 11월 5일(토)부터 19일(토) 까지 갤러리 반디트라소에서 '가벼운 무거움_Airy Heaviness' 전을 가졌다.



장선아 동창

홍선미(무용 90) 동창

2022년 6월 1일(수)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홍선미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댄스시어터Nu가 '제20회 댄스시어터Nu 정기공연' <파랑새 날다>를 공연하였다. 또한 10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제5회 SDP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한편 11월 25일(금)부터 30일(수)까지 이집트에서 열린 '샤름 엘세이크 국제 청소년 연극제'에 참석하여 심사위원 및 마스터클래스 지도자로 활약했다.



홍선미 동창

오현아(섬예 91) 동창

2022년 9월 7일(수)부터 12일(월)까지 갤러리 hoM에서 'Abstract Writing—Lines Unsaid' 언어를 추상화하는 작업으로 개인전을 하였고, 11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토)까지 플랜리빙갤러리에서 2인 초대전을 하고 있다.



오현아 동창

이은주(서양 91) 동창

2022년 11월 8일(화)부터 30일(수) 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마노에서 개인전 '파리..아침산책'을 가졌다. 프랑스의 사진작가 외젠 아제(Eugène Atget)가 촬영한 파리 풍경을 '점. 점.'으로 재현하였다. 무수한 점으로 형성된 풍경은 시간의 흐름 속에 해체되어가는 대상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은주 동창

정유나(독문 91) 동창

정유나 동창이 2022년 6월 1일(수) 열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동작구 바선거구에 나와 선출되어 2선의 원이 되었다. 정유나 동창은 구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정유나 동창

사에 내정됐다. 롯데그룹은 2022년 12월 15일(목) 이와 같은 내용의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김혜주 동창은 이번 인사로 롯데멤버스의 첫 외부 여성 대표이사가 된다.



김혜주 동창

김경원(동양 92) 동창

2022년 10월 4일(화)부터 29일(토) 까지 강남구 논현로 갤러리 1707에서 개인전 'Color of Clay'를 열었다.



김경원 동창

최문선(서양 92) 동창

2022년 10월 10일(월)부터 16일(일) 까지 전시공간 이코노그라피아에서 '성석진 달항아리&제9회 도화원 전'에 참여하였다. 최문선 동창은 푸른 안료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화과를 그려 백자의 미와 현대미술의 조화를 보여 주는 작품을 선보였다.



최문선 동창

이유미(의학 93)·최영아(의학 95) 동창

이유미·최영아 동창이 제2회 '스크랜튼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유미 동창은 선교부문 '메리 스크랜튼 상'을, 최영아 동창은 봉사부문 '윌리엄 스크랜튼 상'을 수상하게 된다. 제2회 시상식은 2023년 6월 15일(목)에 유나이티드문화재단 더글拉斯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유미 동창은 약 20년간 예멘과 요르단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돌보았고, 현재는 아랍 에미리트 후자이라 샘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최영아 동창은 약 22년간 노숙인과 의료 취약계층 진료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 사단법인 회복나눔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노숙인들의 재활을 돋고 있다.



이유미 동창

최영아 동창

김정희(법학 93) 동창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김정희 동창이 2022년 11월 21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에 임명되었다. 김정희 동창은 농림축산식품부 총무과장, 경영인력과장, 농촌산업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촌정책과장,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희 동창

태혜신(무용 93) 동창

2022년 9월 29일(목)부터 30일(금) 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제25회 서울세계무용축제-무용역사기록학회 도큐먼트 공연 <Reconnect History, Here I am>에 안무가로 참여해 <Compose>를 공연했다. 또한 11월 12일(토) 한성대학교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무용과학회 제46회 추계학술심포지엄 '무용예술의 진화를 위한 IT기술의 활용'에서 논문 「빅데이터와 세계예술 융합 양상」을 발표했다.



태혜신 동창

김혜주(통계 93) 동창

신한은행 상무 김혜주 동창이 롯데멤버스 대표이

허정원(서양 93) 동창

허정원 동창은 난설현작가회 국내 교류전을 기획하였다. 강릉대학에 근무하며 작가로 활동하는 허정원 동창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여성작가들과 강릉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난설현작가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현대여성의 삶과 인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천재적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으면서도 크게 꽂피지 못했던 지난 시대 여성의 삶을 반추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생각하게 하는 전시였다.



허정원 동창

김현주(심리 94) 동창

2018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통합 교육구인 쿠퍼티노, 프리몬, 홈스테이드, 림부룩, 몬타비스타 지역 관할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바 있는 김현주 동창이 2022년 11월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현주 동창은 이민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가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현주 동창

윤하나(의학 94) 동창

2022년 10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74차 대한비뇨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022년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되었다. '국내 1호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윤하나 동창은 2002년부터 의학 여대 의대 비뇨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대 서울병원 소변건강연구소 부소장,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국제교류이사,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총무이사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윤하나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2022년 10월 22일(토)부터 30일(일) 까지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사)한국공예가협회전에서 '2022 한국공예가협회상'에 선정되었다. 이상영 동창은 한옥이라는 한국적 이미지를 섬유 기법으로 표현하여 높이 평가되었다.



이상영 동창

부원희(서양 96) 동창

부원희 동창은 2022년 5월 레인보우큐브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10월 19일(수)부터 11월 1일(화) 까지 썬플라우어베이크샵에서 '썬플라우어-부원희' 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불특정한 관람자들이 일상 속에서 우연히 예술과 갑작스런 만남을하게 되는 작은 사건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부원희 동창

양윤정(동양 96) 동창

2022년 9월 21일(수)부터 27일(화) 까지 종로구 삼일대로 갤러리 엠에서 개인전 'Moment Series'를 열었다.



양윤정 동창

유이화(장미 97) 동창

유이화 동창이 2022년 12월 6일(화) 제주도 한림읍에서 '유동룡미술관(이타미준뮤지엄)'을 개관하였다. 유이화 동창의 부친 유동룡(일본 일름: 이타미 준, 1937~2011) 씨는 일본 최고 권위의 건축상 '모라노 도고상'을 비롯해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은 세계적 건축가다. 미술관은 건축가이자 '이타미 준 건축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이화 동창이 직접 설계하였다.



유이화 동창

정영락(도예 97) 동창

정영락 동창이 여주시 제2호 성형분야 도예기능장에 선정되었다. 정영락 동창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경기도 무형문화재 옹기장(제37호 김일만)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옹기장(제96호 김일만) 이수자이다. 1997년부터 오부자옹기에서 25년간 옹기를 제작해왔다.



정영락 동창

백지혜(동양 98) 동창

2022년 10월 12일(수)부터 23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소재 갤러리 민정에서 개인전 '위로의 정원'을 열었다.



백지혜 동창

서민희(화학 99) 동창

2022년 10월 18일(화) 세계 3대 경매 업체 중의 한 곳인 필립스 옥션의 한국 사무소 대표로 임명되었다. 서민희 동창은 뉴욕의 저팬 소사이어티 갤러리, 보스턴 미술관,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을 거쳐 케이옥션에서 근현대 미술 부문 스페셜리스트이자 이사로 근무했다.



서민희 동창

성인제(동양 00) 동창

성인제 동창이 2022년 11월 9일(수)부터 15일(화)까지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 도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성인제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2022년 11월 3일(목)부터 2023년 1월 7일(토)까지 소원화랑에서 개인전 'Nature in Food'를 열었다.



김순임 동창

진민욱(동양 03) 동창

진민욱 동창이 2022년 10월 6일(목)부터 12월 16일(금)까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한원미술관에서 초대전 '어제 걸은 길'을 열었다.



진민욱 동창

홍은아(체육 03) 동창

홍은아 동창이 '제8회 영국 유학 글로벌 동문상'을 수상하였다. 전 세계 약 1,500명의 지원자 중 '글로벌 동문상'의 문화·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로 선발된 홍은아 동창은 현재 모교 체육과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은아 동창은 국내 최연소 FIFA 주심,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개막전을 관장한 최초의 한국인 주심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주심으로 활약했다. 2021년에는 대한축구협회 최초의 여성 부회장으로 선임돼 여자 축구 및 심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홍은아 동창

김초혜(동양 04) 동창

김초혜 동창이 2022년 11월 8일(화)부터 27일(일)까지 이데일리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선에서 초대전 'Blooming Today'를 열었다.



김초혜 동창

박상연(의직 06) 동창

2022년 11월 30일(수) '애슐린(ASHLYN)'의 디자이너 박상연 동창이 제18회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2월 7일(수)까지 비이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컬렉션 전시가 열렸다. 박상연 동창은 일본 요지



박상연 동창

아마모토에서 남성복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에서 여성복 디자이너로 근무했으며, 캠宾클라인에서 라프 시몬스와 함께 근무했고 2021년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레이블 '애슐린'을 론칭했다.

김누리(섬예 08) 동창

2022년 11월 29일(화)부터 12월 4일(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빈칸 을지로에서 전시회 'Between The Borders'를 열었다. 김누리 동창은 이 전시회를 통해 알 깁데기를 통해 어머니 몸의 일부이자 아이 사의 물질로 분열된 자아의 표상을 이야기하며 그 경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김누리 동창

김희진(기악 08) 동창

2022년 9월 3일(토)부터 11일(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2회 보스턴 바흐 국제 오르간 콩쿠르(Boston Bach International Organ Competition)에서 김희진 동창이 1위를 수상했다. 김희진 동창은 2014년 독일 Arp-Schnitger 오르간 콩쿠르 1위, 2018년 이탈리아 Concorso Organistico Internazionale 'Organi Storici del Basso Friuli' 콩쿠르 2위를 수상한 바 있다.



김희진 동창

정승연(생미 10) 동창

정승연 동창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미술사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또한 2022년 11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닷트머스대학,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2 한국미술주간'에서 '개발 그 후의 디자인' 발제를 하기도 했다.



정승연 동창

배지연(의전원 17) 동창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에서 전임 의로 재직 중인 배지연 동창이 2022년 11월 4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배지연 동창은 「대학병원에서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 시행 효과」 연구를 통해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효과성을 규명했다.



배지연 동창

장윤진(디대원 18) 동창

오프클라쎄(한국금속공예주얼리 디자인센터) 아트&이미지 디렉터 장윤진 동창이 '2022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GSD)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됐다. 오프클라쎄는 국내외 약 200여 명의 공예 주얼리 디자이너들과 브랜드가 속해 있는 플랫폼이다. 장윤진 동창은 "앞으로 다양한 공예 디자인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돋는 대한민국의 대표 예술 문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장윤진 동창

이민영(과교 23) 동창

이민영 동창이 2022년 국가직 5급 공채(행정고시) 행정직에서 교육 행정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 교육행정직은 177명이 응시해 6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더불어 노인영(경제학과 3학년) 재학생이 일반행정 수석으로 합격해 모교는 여성 엘리트 공직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명문사학의 명성을 이어갔다. 올해 국가직 5급 공채(행정고시) 행정직은 7,495명이 응시해 평균 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236명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민영 동창

동 창 이 펴 새 책



시작입니다

한기정(특교 75)

한기정 지음 / 마을

한기정 동창이 출간한
시집『시작입니다』에
는 삶에 어린 파동이
멀리 갔다가 되돌아
오는 메아리 같은 울
림이 있고, 푸른 나뭇가지 끝에서 무
르익고 있는 과일처럼 상큼한 서사적
서정의 감충이 있다. '절실하고 남다른
자기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서정시의
권역에 안착했다고 할 수 있고, 서정시
기법의 환유적 표현에 상징성이 가미
된 이미지를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
한기정 동창은 2021년 '17회 구름카페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Miss Kim Weiss Bescheid

박인원(독문 93)

조남주 지음 / 박인원 옮김 / Kiepenheuer & Witsch

김영하 작가의『살인

자의 기억법』번역으

로 독일 추리문학상

국제부문 3위와 독일

독립출판사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인원 동창이 이번에

는 조남주 작가의 소설집『우리가 쓴



것을 자신만의 세련된 독일 어휘를 살
려 독일어로 번역 출간했다. 독일어판
에서는 「우리가 쓴 것」에 수록된 단편
소설 「미스 김은 알고 있다」를 표지로
하였다. 「우리가 쓴 것」은 8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된 소설집으로 각각의 작
품은 가스라이팅, 불법촬영, 돌봄노동,
가부장제, 여성 노년의 삶, 페미니즘
내 세대 갈등 등 여성의 삶에 주요한
화두로 등장했던 문제들을 관통한다.

(컬렉팅) 듀오

채민진(도예 02)

채민진 지음 / 아르테카

'세계적인 컬렉터 부'

부들의 위대한 수집

이야기'라는 부제의

이 책은 세계적인 부

부 컬렉터 22명의 현



대 미술 수집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트
어드바이저인 채민진 동창은 지난 20
여 년간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
며 만났던 수많은 컬렉터 중에서도 특
히 부부가 함께 작품을 수집해 온 컬렉
터들에게 매력을 느꼈다. 어마어마한
슈퍼 리치부터 평범한 우체부와 도서
관 사서 부부, 젊은 신세대 부부 컬렉
터, 은퇴 후 작품을 관리하며 숲속에
살고 있는 노부부까지 그들의 컬렉션
이야기는 마치 각각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다. 또한 최근
한국 미술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대중
화로 인해 아트 컬렉팅에 관심을 가지
게 된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해 줄 것이다.

할머니의 이불장

양선하(동양 05)

양선하 지음 / 키다리

양선하 동창이 쓰고 그린『할머니의
이불장』은 할머니 집에 있는 오래된

이불장과 이불장
속 다양한 이불들
을 정감 있는 그
림체로 담은 그림



책이다. 이불장에서 쏟아진 다양한 이
불을 만지고 노는 족각 놀이, 이불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한 상상 놀이를 생
생하게 담았다. 양선하 동창은 자신이
직접 본 이불장은 물론, 전국의 '할머
니의 이불장' 이미지들을 수집해 그림
책 장면을 구성했다. 덕분에 어린이
독자에게는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는 기회를, 성인 독자들
에게는 오래된 이불장에 대한 추억을
선사한다.

디지털트렌드 2023

김지혜(독문 11)

김지혜 지음 / 책들의정원

김지혜 동창이 불확실

한 경제 상황을 뛰어넘

을 10가지 디지털 전략

을 담은『디지털 트레
드 2023』을 출간했다.



2013년 기자 생활을 시작한 김지혜 동
창은 경제 금융 산업과 부서에서 일하
며 대형 포털사, 펀테크 업체, 금융 회
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밤낮없이
토론했다. 그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쌓
은 디지털 트렌드를 책으로 펴내게 되
었다.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의
꼬마 빌딩이 내 진짜 자산이 되는 NFT
부터, 2023년 대세가 될 웹 3.0과 이를
이용한 미래기술 여행, 데이터 전쟁의
중심이 될 마이데이터와 그로 인해 급
부상할 신산업인 마이페이먼트까지
분석한다. 100만 개 서비스를 단 하나
의 앱에 담은 슈퍼 애플리케이션으로
성공한 기업의 전략도 들여다보고, 김
지혜 동창이 단독 취재했던 기업의 최
고경영자 인터뷰까지 담았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21.12.29~2022.12.28

인문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디어학부	화학과	정승희(98)	1,000,000	오정현(92)	3,000,000	약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조애진(66) 5,000,000	김석임(63) 1,000,000	조소과	윤순호(72) 5,000,000	과학교육과	김순영(62) 1,000,000	약학과
박현숙(57) 5,000,000	홍은영(92) 3,000,000	신혜영(78) 1,000,000	섬유예술과	유경희(83) 1,000,000	김재령(92) 3,000,000	정준순(72) 5,000,000	
임덕기(72) 5,000,000	사회학과	최경희(80) 2,000,000	김은영(92)	3,000,000	수학교육과	김용재(82) 1,000,000	
안성희(88) 1,000,000	윤명근(72) 5,000,000	황복기(83) 1,000,000	생활미술과	신경희(77) 1,000,000	박병희(84) 1,000,000	최경숙(92) 3,000,000	
중어중문학과	신혜령(75) 1,000,000	최경은(89) 1,000,000	홍지양(92)	3,000,000	한은주(79) 1,000,000	최경숙(92) 3,000,000	제약학과
안영호(85) 1,000,000	문명재(77) 2,000,000	백혜진(92) 3,000,000	이윤경(97)	1,000,000	이윤진(92) 3,000,000	권혁란(72) 5,000,000	
김연주(89) 1,000,000	박순월(77) 1,000,000	이윤경(97) 1,000,000	생명과학과	신영선(88) 1,000,000	법대·법전원	이준희(92) 3,000,000	
황현선(92) 3,000,000	김은미(81) 1,000,000	송준임(71) 5,000,000	김성옥(72)	2,000,000	법학과		
영어영문학과	맹경인(86) 1,000,000	김성옥(72) 2,000,000	박미향(89)	1,000,000	한향림(79)	1,000,000	생활환경대학
성혜옥(70) 1,000,000	사회복지학과	황유경(89) 2,000,000	이은주(92)	3,000,000	정현미(82)	1,000,000	가정관리학과
김혜숙(76) 1,000,000	최재명(66) 1,000,000	이은주(92) 3,000,000	윤석희(87)	1,000,000	송영숙(86)	1,000,000	
윤유정(76) 1,000,000	김휘성(67) 5,000,000	황유경(89) 2,000,000	김상희(81)	1,000,000	윤정연(90)	1,000,000	
이정숙(77) 1,000,000	이화수(77) 1,000,000	이영애(81) 1,000,000	체육대학		조현지(91)	2,000,000	의류직물학과
박영주(78) 1,000,000	현리사(92) 3,000,000	김미영(85) 1,000,000	체육과		태지영(92)	3,000,000	
홍성미(78) 1,000,000	조상미(94) 1,000,000	유인희(56) 5,000,000	이영만(76)	1,000,000	김구슬(93)	1,000,000	
정경숙(79) 1,000,000	심리학과	이영만(76) 1,000,000	김경아(92)	3,000,000	안서연(02)	1,000,000	식품영양학과
방혜성(82) 1,000,000	석영미(89) 1,000,000	김경아(92) 3,000,000	이영옥(92)	1,000,000	박영애(81)	1,000,000	
한유경(91) 1,000,000	엄현경(89) 1,000,000	이영옥(92) 1,000,000	음악대학		이연수(87)	1,000,000	
곽상희(92) 3,000,000	홍승렬(92) 3,000,000	박영애(81) 1,000,000	기악과		홍미영(89)	1,000,000	
불어불문학과	김미자(97) 1,000,000	이연수(87) 1,000,000	교양학과		김해련(84)	1,000,000	
배윤경(87)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임금자(59) 5,000,000	장지원(92)	3,000,000	김혜원(88)	1,000,000	
송미경(92) 3,000,000	수학과	정소영(62) 1,000,000	사법대학		임선희(88)	1,000,000	
독어독문학과	조의주(86) 1,000,000	정지강(92) 3,000,000	교육학과		윤은주(89)	1,000,000	
김영미(72) 5,000,000	김희선(87) 1,000,000	김은산(59) 5,000,000	국제사무학과		김성은(92)	3,000,000	
유동신(74) 1,000,000	문온(87) 1,000,000	신난식(73) 1,000,000	의과대학		김영주(71)	1,000,000	대학원
이정화(74) 1,000,000	이정효(87) 1,000,000	이수연(92) 4,000,000	유아교육과		김영파(88)	1,000,000	
손희정(87) 1,000,000	이정효(87) 1,000,000	정선주(92) 6,074,000	유아교육과		김준실(72)	5,000,000	
황자숙(92) 3,000,000	진양혜(88) 3,000,000	김세운(99) 1,000,000	교육공학과		정혜중(94)	1,000,000	
기독교학과	통계학과	이미경(86) 1,000,000	유체계학과		오혜숙(78)	1,000,000	
최수현(92) 3,000,000	윤은영(92) 3,000,000	정선주(92) 6,074,000	작곡과		박보경(13)	1,000,000	
사학과	물리학과	임진(72) 1,000,000	유체계학과		심현(80)	1,000,000	
임계순(67) 5,000,000	모혜정(62) 5,000,000	이현주(92) 3,000,000	초등교육과		성시열(81)	1,000,000	교육대학원
임인선(72) 5,000,000	김경자(68) 1,000,000	이현주(92) 3,000,000	교육학과		임선영(82)	1,000,000	
유영희(74) 1,000,000	남상택(74) 1,000,000	박승희(74) 1,000,000	교육공학과		김태경(84)	1,000,00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최은희(81) 1,000,000	교육공학과		임수현(84)	1,000,000	
정지희(77) 1,000,000	정금희(86) 1,000,000	최은희(81) 1,000,000	교양학과		김상수(84)	1,000,000	
문화정보학과	이미경(86) 1,000,000	최수황(92) 3,000,000	교양학과		김성희(87)	1,000,000	
강유정(91) 1,000,000	문하숙(85) 1,000,000	이희숙(86) 1,000,000	한국음악과		전혜성(08)	2,000,000	
정소영(91) 1,000,000	신호경(92) 3,000,000	이희숙(86) 1,000,000	한국음악과		정혜경(92)	3,000,000	
김수정(92) 500,000	이숙희(87) 1,000,000	한나라(92) 3,000,000	특수교육과		최영은(08)	1,000,000	
표순희(92) 500,000	최은영(87) 1,000,000	박승희(74) 1,000,000	사회과교육과		김순옥(19)	1,000,000	
	배주연(88) 1,000,000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신학대학원		
	신소영(88) 1,000,000	동양화과	간호학과		송미경(18)	1,000,000	
	이정립(88) 1,000,000	최성희(92) 3,000,000	간호학과				
	한미경(88) 1,000,000	전혜경(68) 5,000,000	임경희(80)	1,000,000			
	박효서(92) 3,000,000	홍종선(69) 5,000,000	변은경(83)	1,000,000			
	조주은(97) 1,000,000	남여주(86) 1,000,000	장혜영(85)	1,000,000	학과·연도 미상		
		정소연(92) 3,000,000	사회과교육과		서현교	1,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1~2022.12.28 (과·졸업년도 순)

인문과학대학	김성자(61) 300,000	박미해(64) 300,000	유정자(65) 300,000	박영숙(67) 300,000	임완숙(68) 300,000
국어국문학과	강진환(62) 351,624	안정환(65) 300,000	신효재(66) 300,000	오원자(68) 300,000	서경자(69) 300,000

송호연(69) 300,000	장혜경(73) 300,000	홍인화(80) 300,000	화학과	오지영(88) 500,000	이명경(77) 500,000
유원화(69) 300,000	신덕영(75) 300,000	김영혜(77) 300,000	사회학과	정준희(71) 300,000	김경주(80) 300,000
박학규(71) 300,000	김영혜(77) 300,000	김덕신(66) 300,000		배경화(74) 300,000	김서명(89) 500,000
최숙희(73) 300,000	배혜화(77) 300,000	유혜향(66) 300,000		최인(74) 300,000	김민정(90) 500,000
최경희(77) 300,000	조정순(77) 300,000	이수인(67) 300,000		김정원(76) 300,000	정가희(19) 500,000
하선아(85) 300,000	김지윤(79) 300,000	민순기(70) 300,000		석지수(12) 500,000	
심현정(88) 500,000	이규숙(81) 300,000	김자혜(74) 300,000		주예영(15) 500,000	조형예술대학
이현주(88) 500,000	조은실(85) 300,000	문명재(77) 300,000	생명과학과	강미연(74) 300,000	사법대학
탁유진(22) 500,000	김세정(22) 500,000	박순원(77) 300,000		강은경(79) 500,000	교육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서동선(77) 300,000		김혜린(83) 300,000	호재숙(49입) 300,000
금지원(92) 500,000	민용자(67) 300,000	김은미(81) 300,000		박성희(86) 500,000	사지숙(55) 300,000
박수현(08) 500,000	오영란(67) 300,000	최신애(81) 300,000		김은산(59) 300,000	김은상(59) 300,000
강운화(20) 500,000	최옥주(67) 300,000	김정희(82) 300,000		한진순(70) 300,000	한임순(59) 300,000
영어영문학과	이숙경(68) 300,000	김우진(08) 500,000		조예현(74) 300,000	최구자(65) 300,000
김세영(50) 1,000,000	이금숙(69) 300,000	오명자(65) 300,000		합천경(77) 300,000	전정희(73) 300,000
김순자(55) 300,000	추혜경(71) 300,000	최재병(66) 300,000	사회복지학과	김선호(75) 300,000	구순희(65) 300,000
전은경(59) 300,000	김용애(72) 300,000	김일숙(67) 300,000		김신지(68) 300,000	김예순(68) 300,000
정소영(62) 300,000	차성은(72) 300,000	한인영(72) 300,000		박영자(68) 300,000	이인숙(69) 300,000
분영혜(63) 300,000	유동신(74) 300,000	조호경(87) 500,000		장예순(68) 300,000	이인숙(69) 300,000
유영애(63) 300,000	임병희(74) 300,000	이정자(74) 300,000	전자공학과	표귀명(81) 300,000	유승희(70) 300,000
양정자(64) 300,000	이은주(82) 300,000	이화수(77) 300,000		박효정(90) 300,000	이상희(72) 300,000
박명자(67) 300,000	최상민(다경)(03) 500,000	조명희(77) 300,000		김성희(89) 300,000	채문숙(74) 300,000
엄은옥(67) 300,000	기독교학과	박영애(79) 300,000		이명임(64) 300,000	노경희(77) 300,000
오경임(67) 300,000	김 형(65) 300,000	이효수(97) 500,000		이현주(83) 300,000	박영숙(81) 300,000
한수미(67) 300,000	김미순(75) 300,000	정유선(02) 500,000		김로아(87) 500,000	이정표(85) 300,000
송혜영(69) 300,000	최수현(92) 500,000	이은실(60) 1,300,000	심리학과	김성희(89) 300,000	유아교육과
정성희(69) 300,000	윤예란(22) 500,000	오봉림(61) 300,000		오현아(91) 500,000	정명자(68) 300,000
김영옥(70) 300,000	사학과	임혜영(64) 300,000	음악대학	김명임(63) 500,000	임형란(71) 300,000
박지화(70) 300,000	임계순(67) 300,000	홍기병(68) 300,000	기악과	장유근(67) 300,000	문경숙(74) 300,000
성혜옥(70) 300,000	오영옥(68) 300,000	남영자(71) 300,000		조창연(67) 300,000	오승희(75) 300,000
양연수(70) 300,000	오옥환(68) 300,000	신현숙(71) 300,000		신수연(69) 300,000	초등교육과
이경숙(70) 300,000	임지향(68) 300,000	송혜숙(73) 300,000		고정자(64) 300,000	고정자(64) 300,000
최선열(70) 300,000	전진순(68) 300,000	김정애(76) 300,000		김경자(68) 362,258	김경자(68) 362,258
방화정(72) 300,000	김경순(70) 300,000	강순원(80) 300,000		장규선(75) 300,000	장화숙(68) 300,000
이승신(72) 300,000	윤현숙(71) 300,000	한성엽(82) 300,000		조미연(82) 300,000	이재희(71) 300,000
장 선(72) 300,000	유제옥(74) 300,000	이현승(93) 500,000		염선희(83) 300,000	김세향(74) 300,000
권혜옥(75) 300,000	오승연(76) 300,000	장서희(01) 500,000	경제학과	이미숙 300,000	조진영(77) 300,000
김희자(76) 300,000	주혜련(77) 300,000	박민정(02) 500,000		장식미술과	교육과학과
유의순(76) 300,000	정혜중(91) 500,000	정소영(62) 300,000		정희승(73) 300,000	김준희(67) 300,000
이정숙(77) 300,000	박기옥 300,000	우숙영(87) 500,000		박혜성(78) 300,000	전진오(71) 500,000
김남민(78) 300,000	불 명 300,000	남영화(91) 500,000		김승연(88) 500,000	김혜련(73) 300,000
이명실(78) 300,000	사회과학대학	백진영(91) 500,000	피아노과	도예과	노정숙(74) 300,000
홍성미(78) 300,000	정치외교학과	민경자(63) 300,000		진숙현(77) 300,000	특수교육과
문영희(79) 300,000	최길남(70) 300,000	최길남(70) 300,000		최재원(84) 300,000	한기정(75) 300,000
이혜남(79) 300,000	한연숙(59) 300,000	노선숙(79) 300,000		김은경(93) 500,000	한은주(79) 300,000
김종우(80) 300,000	구혜경(71) 300,000	조은희(81) 300,000	자연과학대학	체육대학	김태연(89) 300,000
김동숙(81) 300,000	이문숙(79) 300,000	김민경(85) 500,000		체육학과	채명숙(92) 500,000
임순희(82) 300,000	김미령(80) 300,000	한지영(91) 500,000		관현악과	영어교육과
김주희(92) 500,000	정민재(81) 300,000	송혜숙(96) 500,000		방봉세(51) 300,000	제기원(69) 300,000
명선영(92) 500,000	임수영(91) 500,000	유인숙(75) 300,000		김정자(56) 300,000	김영숙(69) 300,000
김동연(93) 500,000	김유진(22) 500,000	유시내(96) 500,000		이요식(57) 300,000	김향련(69) 300,000
이승은(94) 500,000	문현정보학과	이혜은(00) 500,000		민소원(01) 500,000	임정희(60) 300,000
박자희(07) 500,000	홍승진(65) 300,000	유선희(04) 500,000		임정희(60) 300,000	안경숙(78) 300,000
송세일(09) 500,000	박영숙(70) 300,000	모혜정(62) 300,000	물리학과	서희경(69) 300,000	강혜숙(80) 300,000
김민경(16) 500,000	지금련(72) 300,000	이영애(68) 300,000		문규순(70) 300,000	제기원(69) 300,000
불어불문학과	윤소영(73) 300,000	안웅학(70) 300,000		이숙원(70) 300,000	박수경(80) 300,000
허영자(62) 3,500,000	노경석(75) 300,000	이정숙(68) 300,000		이지현(91) 500,000	이지현(91) 500,000
남혜경(63) 300,000	이승하(16) 500,000	윤남숙(72) 300,000		이미진(07) 500,000	이미진(07) 500,000
조귀연(65) 3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김현나(02) 500,000		박경실(78) 300,000	외국어교육과
임채문(67) 300,000	장명수(64) 300,000	이재화(75) 300,000		김양례(91) 500,000	이혜완(69) 300,000
이원옥(68) 300,000	차경애(66) 300,000	김육자(67) 300,000		김선희(93) 500,000	김선희(82) 300,000
임순영(70) 300,000	한명미(67) 300,000	박수산(91) 500,000		최지원(22) 300,000	사회과교육과
강미영(72) 300,000	남성희(78) 300,000	이수영(93) 500,000		조영심(77) 300,000	이선희(61) 300,000
		안지영(95) 500,000		조수형(70) 300,000	강봉기(63) 300,000
		서정은(08) 500,000		방명주(73) 300,000	허명화(70) 300,000
		이소윤(10) 500,000		조영심(77) 300,000	민태희(70) 300,000
					서정희(70) 300,000

구경혜(71) 1,000,000	이미대안(55) 300,000	양미혜(82) 300,000	서인도(65) 300,000	박수영(84) 300,000	김태연(70) 300,000	
김명희(A71) 300,000	김정자(56) 300,000	임선영(82) 300,000	송연자(65) 300,000	김성은(85) 500,000	박진자(71) 300,000	
김영주(71) 300,000	허남희(59) 300,000	김태경(84) 300,000	유희열(65) 300,000	김은미(86) 500,000	김남주(72) 300,000	
김옥영(71) 300,000	차명희(66) 500,000	최혜영(85) 300,000	조수연(65) 300,000	김현주(86) 500,000	강종은(74) 300,000	
노현숙(71) 300,000	천경희(66) 300,000	박혜영 500,000	황영자(65) 300,000	김승희(88) 500,000	김광옥(75) 300,000	
양태주(71) 300,000	전효숙(73) 300,000	간호대학	이정자(66) 300,000	최영옥(88) 500,000	이명복(75) 300,000	
유경실(71) 300,000	박은정(74) 300,000		김보혜(67) 300,000	이윤정(92) 500,000	황은주(75) 349,534	
이선희(71) 300,000	신순자(74) 300,000	간호학과	박성자(67) 300,000	김희진(02) 500,000	최진자(80) 300,000	
이윤숙(71) 300,000	김남애(80) 300,000		안규형(67) 300,000	유별내(02) 500,000	전보신(81) 300,000	
장세화(71) 300,000	권성희(86) 500,000	정봉식(71) 300,000	이남희(70) 300,000	권한비(21) 500,000	조미숙(81) 300,000	
전혜영(71) 300,000	진은희(88) 300,000		박혜자(75) 300,000	우혜인(22) 500,000	조미숙(83) 300,000	
정봉식(71) 300,000	양옥희(90) 500,000	조태순(71) 300,000	유명희(75) 300,000	강영심(69) 300,000	융합보건학과	
조태순(71) 300,000	정영심(00) 500,000		김덕길(69) 300,000	이숙희(75) 300,000	장점숙(69) 300,000	
최 환(71) 300,000	안신정(06) 500,000	최필녀(71) 300,000	임경희(80) 300,000	김선주(79) 300,000	이수인(70) 300,000	
최필녀(71) 300,000	윤수영(07) 500,000		이청란(81) 300,000	박성숙(69) 300,000	김옥례(71) 300,000	
이인숙(72) 300,000	임민정(10) 500,000	최영순(72) 300,000	변은경(83) 300,000	정인숙(69) 300,000	함추희(72) 300,000	
최영순(72) 300,000	유미경(01) 500,000		유미경(01) 500,000	하영숙(69) 300,000	이선숙(74) 300,000	
성경옥(74) 300,000	송사라(20) 500,000	경영대학	문경재(70) 300,000	문경재(70) 300,000	유형심(90) 500,000	
성효현(78) 300,000	경영학과		변진희(70) 300,000	안운선(89) 500,000		
송선희(78) 300,000	임혜옥(74) 300,000		정순자(70) 300,000	문미란(93) 500,000		
손혜경(80) 500,000	김영선(78) 300,000	악학대학	박영자(71) 300,000	전수경(94) 500,000	국제학부	
최승원(80) 300,000	고혜경(80) 300,000		이주재(71) 300,000	서은영(99) 500,000	국제학과	
부은령(81) 300,000	홍순경(80) 300,000	국제사무학과	고명순(72) 300,000	최지영(08) 500,000	최수안(06) 500,000	
이한순(83) 300,000	강명화(83) 300,000		박정아(72) 300,000	생활환경대학	교육대학원	
서경애(84) 300,000	나민경(98) 500,000	과학교육과	임형순(73) 300,000		양수화(74) 300,000	
김방희(85) 500,000	조유진(09) 500,000		김유현(75) 300,000	가정학과	유지선(18) 500,000	
손희정(88) 500,000	교과사무학과	의과대학	유남희(75) 300,000		정책과대학원	
송옥자(66) 300,000	조제숙(73) 300,000		정재욱(59) 300,000	사회복지대학원	전혜성(08) 500,000	
곽혜경(68) 300,000	이광희(74) 300,000	의학과	김영길(60) 300,000		신학대학원	
주영미(72) 300,000	김지혜(92) 500,000		이도선(60) 300,000	가정관리학과	천미영(14) 500,000	
한영수(72) 300,000	의학과	의과대학	김동선(61) 300,000		학과·연도 미상	
박현경(81) 300,000	송예원(59) 300,000		김정화(61) 300,000	신학대학원	김정수 300,000	
박종서(82) 300,000	손기현(89) 500,000	의학과	김춘숙(61) 300,000		박인숙 300,000	
조소현(95) 500,000	이용옥(60) 300,000		최옥금(61) 300,000	학과·연도 미상	윤혜원 300,000	
신명은(05) 500,000	남소자(66) 300,000	의학과	김순영(62) 300,000		이수자 300,000	
수학교육과	유신애(69) 300,000		김정훈(62) 300,000	의류직물학과	이혜재 300,000	
심홍임(76) 300,000	주문희(70) 300,000	의학과	김춘자(63) 300,000		장수진 500,000	
신경희(77) 300,000	우명숙(71) 300,000		이순자(63) 300,000	의류직물학과	조선영 300,000	
조은숙(82) 300,000	이경혜(71) 300,000	의학과	구신자(64) 300,000		불 명 300,000	
윤희숙(82) 300,000	이영주(72) 300,000		신정자(64) 300,000	의류직물학과	불 명 300,000	
이수영(82) 300,000	방은숙(74) 300,000	의학과	안화자(64) 300,000		불 명 300,000	
이현심(83) 300,000	이덕용(75) 300,000		이신애(64) 300,000	식품영양학과	불 명 500,000	
장순복(83) 300,000	이혜영(77) 300,000	의학과	이지영(64) 300,000		불 명 300,000	
한선옥(87) 500,000	오혜숙(78) 300,000		정애영(64) 300,000	식품영양학과	불 명 300,000	
김혜영(92) 300,000	심 현(80) 300,000	의학과	홍경자(64) 300,000		불 명 300,000	
법대·법전원	백예란(81) 300,000		황민자(64) 300,000	식품영양학과	불 명 300,000	
	이경숙(81) 300,000	법학과	김옥진(65) 300,000		불 명 300,000	
법학과	홍경희(81) 300,000		김화자(65) 300,000	식품영양학과	불 명 300,000	
	법학과		법학과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2.1~2022.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배동자(58)	최재영(61)	이혜숙(66)	박지온(02)	영어영문학과	고학신(59)	김옥선(61)
이영옥(62)	임인진(58)	김길옥(62)	정준선(66)	김연주(07)	류수인(50)	성양경(60)	김정매(63)
국어국문학과	김중자(60)	정순자(정운현)(64)	오원자(68)	조인숙(11)	천영애(55)	유초선(60)	박봉숙(63)
김수희(58)	신도자(60)	윤수영(65)	임덕기(72)	중어중문학과	이인주(56)	윤위영(60)	박인자(63)
김영학(58)	양중자(60)	불 명(66)	한순미(75)	안영호(85)	김경숙(58)	최영희(60)	엄윤성(63)

유행립(63)	곽소춘(65)	심리학과	손주화(94)	이주형(60)	윤순희(65)	김인원(75)
윤문자(64)	김재향(67)	박경숙(57)	이명은(18)	이민정(67)	김영희(68)	송영희(77)
김춘미(65)	서정임(68)	황혜자(57)		김미자(70)	박정수(68)	조윤희(77)
정해원(65)	정혜자(72)	김태련(60)	공과대학	박영순(70)	우소학(68)	김영숙(83)
정혜주(65)	최경숙(74)	김순옥(61)	컴퓨터공학과	이주형(80)	이재옥(68)	안양희(85)
최계자(65)	정현주(76)	오봉림(61)	감인정(87)	최유미(85)	전희정(68)	박균하(94)
고연희(68)	최유리(84)	박순자(66)	이영옥(92)	장식미술과	김임순(70)	김은서(22)
이영숙(68)		장신호(69)	박인영(99)	고정희(74)	이자연(70)	수학교육과
이유경(68)	사회과학대학	조상옥(76)	이경민(22)	신승원(87)	박경애(71)	문봉선(76)
오경십(70)	정치외교학과	장경숙(79)		신영선(88)	김남희(91)	김정열(80)
이종희(70)	윤혜자(61)	이부용(81)	음악대학	이연희(92)	유근희(61)	김정미(87)
서옥규(72)	김영숙(70)	김숙희(84)	백신숙(54)	이해련(92)	유근희(61)	
이명숙(74)	김영희(70)	곽운경(21)	기악과	한진경(92)	최영란(61)	법대·법전원
정덕애(74)	서임미(70)	윤혜원(21)	황경자(경현)(59)	도예과	김윤미(86)	법학과
백혜련(75)	서정희(70)	유채린(22)	피아노과	안희정(85)	문희(92)	이홍배(61)
이계호(76)	이양준(70)	경제학과	윤미재(65)	남연숙(86)	이목미(93)	황의재(61)
이승희(80)	이연표(70)	조혜선(06)	이혜영(83)	김덕희(92)	김운천(96)	민명자(65)
서영지(81)	조백련(70)	고채윤(22)	김태영(88)	이호진(03)	서유현(96)	윤순한(65)
박경애(83)	조복선(70)	김예진(22)	원현정(08)	디자인학부	초등교육과	홍경자(65)
이진하(88)	하정희(70)		관현악과	김보경(03)	이행자(65)	양정자(66)
김혜경(92)	신경희(71)	자연과학대학	김내리(93)	홍선주(22)	이인숙(70)	안정희(67)
엄현진(93)	이명숙(71)	수학과	김자영(03)		이지수(71)	윤혜숙(70)
채현숙(95)	손인숙(72)	윤연상(62)	성악과	체육대학	조을순(75)	박관순(72)
오승우(00)	양혜련(72)	김경애(72)	주영희(57)	체육과	김광자	이중분(72)
현솔잎(09)	최종혜(76)	이숙자(73)	강순미(71)	성정순(49)	교육공학과	조근배(77)
김민선(16)	정정의(92)	이수현(00)	김경자(68)	이성여(65)	이숙애(72)	백은애(90)
조민경(22)	강지혜(21)	박나영(08)	김시애(75)	김해자(66)	박효숙(84)	김구슬(93)
불어불문학과	행정학과	물리학과	신순아(85)	최춘자(66)	영어교육과	서희원(97)
최병화(61)	유샛별(07)	조옥주(61)	작곡과	신정례(67)	김경숙(69)	이서하(07)
권남규(64)	김선우(16)	정경숙(63)	강순미(71)	전성자(67)	노선자(69)	
김송자(64)	문화정보학과	김경자(68)	김순옥(74)	홍양자(67)	최종숙(72)	경영대학
성종순(64)	유애자(65)	이미경(86)	이지연(22)	신경자(68)	하현숙(72)	경영학과
윤용범(64)	문영주(67)	조은희(67)	조현정(75)	이정자(68)	조성실(75)	이금옥(69)
조행자(64)	배주연(88)	한미경(88)	송향선(70)	최영숙(69)	문수정(84)	
이초애(66)	조혜진(91)	박효서(92)	이순남(71)	김은희(72)	강월석(76)	
이경해(67)	원소정(21)	신희원(92)	이순남(71)	김유련(97)	김은정(93)	
이광자(67)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주은(97)	송향선(72)	이은희(72)	박서윤(22)	이수현(11)
이한순(67)	이정민(63)	정정자(65)	이정민(67)	무용학과	이현정(94)	김혜연(22)
정광자(73)	정정자(65)	류승희(106)	이정민(67)	조정자(67)	정주은(00)	국제사무학과
김보경(81)	이정민(67)	화학과	이은희(72)	무용학과	외국어교육과	임은식(81)
임선희(85)	조정자(67)	강영숙(60)	곽은숙(86)	안준자(68)	사회과교육과	
채은미(85)	김미령(69)	김정남(60)	불명(89)	김정수(70)	김영숙(69)	의과대학
안서연(22)	김인자(73)	김종은(60)	이보경(89)	손경순(77)	김선자(82)	의학과
윤효정(22)	송미연(86)	박영현(60)	이승은(89)	윤종옥(88)	정현정(92)	
독어독문학과	송지은(01)	전영자(63)	김경원(92)		사회과교육과	배선자(46)
홍명자(67)	고나리(05)	양영자(65)	나정윤(92)	사범대학	박정복(57)	박명숙(53)
김장영(71)	강민지(16)	양하자(65)	배호주(93)	서양화과	송삼랑(61)	양인숙(66)
최영민(71)	사회학과	이인희(70)	민명홍(71)	교육학과	김순희(59)	김순희(59)
한승연(92)	장의순(62)	한운숙(72)	양경숙(63)	전정희(73)	최영자(66)	우복희(63)
기독교학과	최용소(65)	한운숙(72)	백인숙(50)	백인숙(50)	성봉기(68)	배민자(66)
이정자(66)	정향자(66)	심승영(73)	구은경(89)	김애자(56)	윤여숙(69)	방희연(68)
장수자(66)	한은희(68)	안소영(73)	안세진(21)	조병주(56)	김숙자(70)	김혜진(71)
한은실(72)	이효원(69)	최희성(74)	하민정(22)	이연숙(57)	박영주(70)	서성희(71)
변은지(97)	박춘호(70)	박명옥(81)	조소과	권유봉(58)	이선희(73)	유경화(74)
철학과	최진선(70)	이건정(85)	박덕선(65)	김은산(59)	이연희(75)	최금자(74)
허지선(16)	사회복지학과	생명과학과	원영은(90)	김춘심(59)	박금옥(83)	이경자(75)
최한결(22)	오순희(60)	이정애(59)	박선영(22)	심재완(59)	안정숙(92)	장예숙(76)
사학과	손경자(64)	최영희(60)	섬유예술과	이양순(59)	송수연(09)	김문자(80)
이은숙(60)	이정자(64)	이금자(67)	오순영(64)	권해숙(61)	과학교육과	최신영(80)
김인숙(61)	최수자(67)	윤영숙(68)	봉지희(85)	김애순(61)	정재숙(58)	홍기숙(80)
정민자(61)	고순자(69)	윤영애(68)	전영선(88)	서천식(61)	한옥희(67)	
남상훈(62)	이정민(72)	박혜순(72)	김연재(94)	백영자(63)	한태화(68)	간호대학
김정자(64)	변경연(22)	오시연(89)	생활미술과	이정옥(63)	강혜숙(74)	간호학과

남상옥(62)	엄옥금(63)	김영미(79)	이주순(73)	고명선(영문 76)	박복길(교육 60)	홍유림(불문 13)
권명자(71)	전희신(63)	한명희(83)	조남옥(74)	박금희(불리 76)	박정자(화학 62)	최혜인(경영 16)
김택숙(71)	정창섭(63)	진예정(85)	임찬희(78)	최영자(사회 77)	전숙자(사회과교육 65)	오타와
최혜은(98)	차영화(63)	양소희(88)	전혜선(82)	김병석(작곡 79)	이순길(화학 66)	600,000원
허옥자(63)	이혜진(89)			황경숙(체육 79)	김광주(교육 67)	일본
악학대학	황문희(63)	박지연(91)	대학원	나연희(경영 79)	민경희(커미부 67)	570,000원
악학과	김기방(64)	김선아(95)		서해석(영문 81)	이수형(커미부 67)	곽소춘(사학 65)
최혜정(49)	김정경(64)	엄정윤(96)		유숙영(법학 85)	임명애(국문 73)	정정자(커미부 65)
전예실(51)	나진미(64)			윤지연(간호 85)	성형숙(피아노 74)	최영숙(체육 69)
김순명(57)	백정자(64)	생활환경대학	디자인대학원	고선영(외교 86)	이체화(무용 76)	고정희(장미 74)
김원숙(57)	오성지(64)	가정학과		이정은(70)	최경순(커미부 87)	박경희(약학 82)
김정순(57)	이은실(64)	손경희(58)			신경화(조소 88)	송미연(커미부 86)
이영숙(57)	이웅실(64)	김선영(59)	신학대학원		김명원(수학 92)	황민경(영교 86)
이전경(57)	이정혜(64)	이혜수(60)			박시영(영문 96)	구은경(서양 89)
이경정(57)	이학자(64)	정은희(60)	장계영(20)	김수진(영경 91)	베이징	김덕희(도예 92)
배숙재(58)	임선자(64)	박선자(62)	학과·연도 미상	이유진(섬예 95)	1,000,000원	
유문화(58)	정태연(64)	박창순(62)			보스턴	나정윤(동양 92)
유종목(58)	황대성(64)	박영혜(63)		이순자(67)	750,000원	배호주(동양 93)
이은춘(58)	김명자(66)	이영예(63)		박경희(68)	670,760원	이목미(유교 93)
이혜재(58)	이기순(66)	김용자(64)		이규행(68)	차인자(영문 50)	손주화(생명 94)
문희(59)	이은성(66)	박청자(64)		이순례(수학 59)	697,580원	김선아(제약 95)
문화정(59)	김수옥(67)	예경혜(64)		전두선(68)	세인트루이스	김운천(평교원 96)
박정애(59)	김순애(67)	나순구(65)		문춘자(09)	김영원(기악 61)	김보경(디자인 03)
신가균(59)	김진희(67)	박부자(65)		강혜식	405,625원	고나리(커미부 05)
윤혜숙(59)	이평숙(67)	박정자A(65)		국혜원(사학 62)	최경선(영문 61)	문춘자(정대원 09)
진경순(59)	조외희(68)	오매성(66)		조혁이(생명 64)	김평자(영문 63)	이명은(생명 18)
최안자(59)	한윤자(68)	전영자(66)		김지수 100,000	이주자(사교 67)	자카르타
최은희(59)	신정희(69)	박순자(67)			이수자(가정 63)	클리블랜드
고순환(60)	오인덕(69)	장영희(67)			최길자(화학 65)	토론토
김보근(60)	오정순(69)	김혜영B(68)			정선주(성악 68)	필라델피아
유선경(60)	김재순(70)	배계현(68)			이애희(간호 69)	624,193원
윤계임(60)	신옥희(70)	암혜숙(68)			장숙(교공 70)	선재숙(의학 72)
윤정섭(60)	정현숙(70)	가정관리학과			이전숙(의직 70)	남진우(간호 73)
이종희(60)	박숙현(71)	권광자(71)			박화윤(교육 72)	양혜자(교육 74)
이주화(60)	이윤영(71)	노재열(71)			이영혜(의학 72)	최혜영(생명 86)
장현숙(60)	이태윤(71)	서태선(75)			이현실(심리 73)	시드니
정선용(60)	채정열(71)	의류직물학과			손숙희(작곡 73)	423,286원
최혜경(60)	임순옥(72)	박윤정(55)			기영석(국사 73)	402,456원
한숙자(60)	김상희(76)	김혜자(60)			심창교(물리 75)	시애틀
한영숙(60)	김현미(78)	조규화(66)			402,456원	호치민
허경순(60)	최경석(81)	유혜자(77)				홍콩
홍준자(60)	박경희(82)	오근영(92)				싱가포르
고화영(61)	장미숙(82)	이서윤(03)			1,500,000원	4,072,134원
김옥녀(61)	박경(84)	이미자	기타 이름 미상			애틀랜타
안옥경(61)	김영은(85)	식품영양학과	(9명)			(*이하 홍콩달러)
온영기(61)	허정순(85)	박종오(58)				방혜자(교육 66) 1,000
이광구(61)	김해임(86)	김영순(69)	국내 저희			이명희(무용 68) 2,000
장기옥(61)	강은주(88)	장선재(69)				최명성(교공 76) 2,000
정은자(61)	박영희(94)	편희숙(69)	순천			김정후(수학 81) 2,000
반묘령(62)	권진현(05)	이영숙(70)		630,000원		김미도(관현 81) 500
배현진(62)	박지영(05)	조정숙(71)		1,301,835원		정도경(관복 81) 5,000
송미래(62)	제약학과	정은주(77)		374,825원		최성희(정외 87) 3,000
김국자(63)	민혜경(73)	전강옥(85)				한유미(음보 90) 5,000
김현혜(63)	백영희(75)	최수미(94)				도주원(생미 92) 1,000
안복자(63)	김희경(78)	융합보건학과				오은정(법학 92) 1,000
						심사현(사회 95) 200
						조경진(영문 98) 200
						김보혜(경제 02) 1,000
						기정화(영문 04) 1,000
						신지원(사회과교육 02) 500
						노정아(경영 04) 500
						박은정(정외 04) 500
						유스틴
						이재영(환경 09) 670,760원
						정소담(디자인 09) 670,760원
						김도형(국문 10) 670,760원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 E-mail : ewhaalum@ewha.ac.kr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5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5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6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INCE 1999

S.Noble

에스노블

두 대통령 家의 성혼을 이루어 낸

23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 노하우

Nobless 결혼을 증명하는 최고의 성혼을

집안까지 생각하신다면, 역시 Superior Nobel. **S.Noble.**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2023년에도 당신에게 **귀를 쫓긋!**

계묘년 새해,
큰 귀로 작은 소리까지 듣는 토끼처럼
고객의 말에 귀 기울여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중심'을 실천하는 신한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